



## 펄 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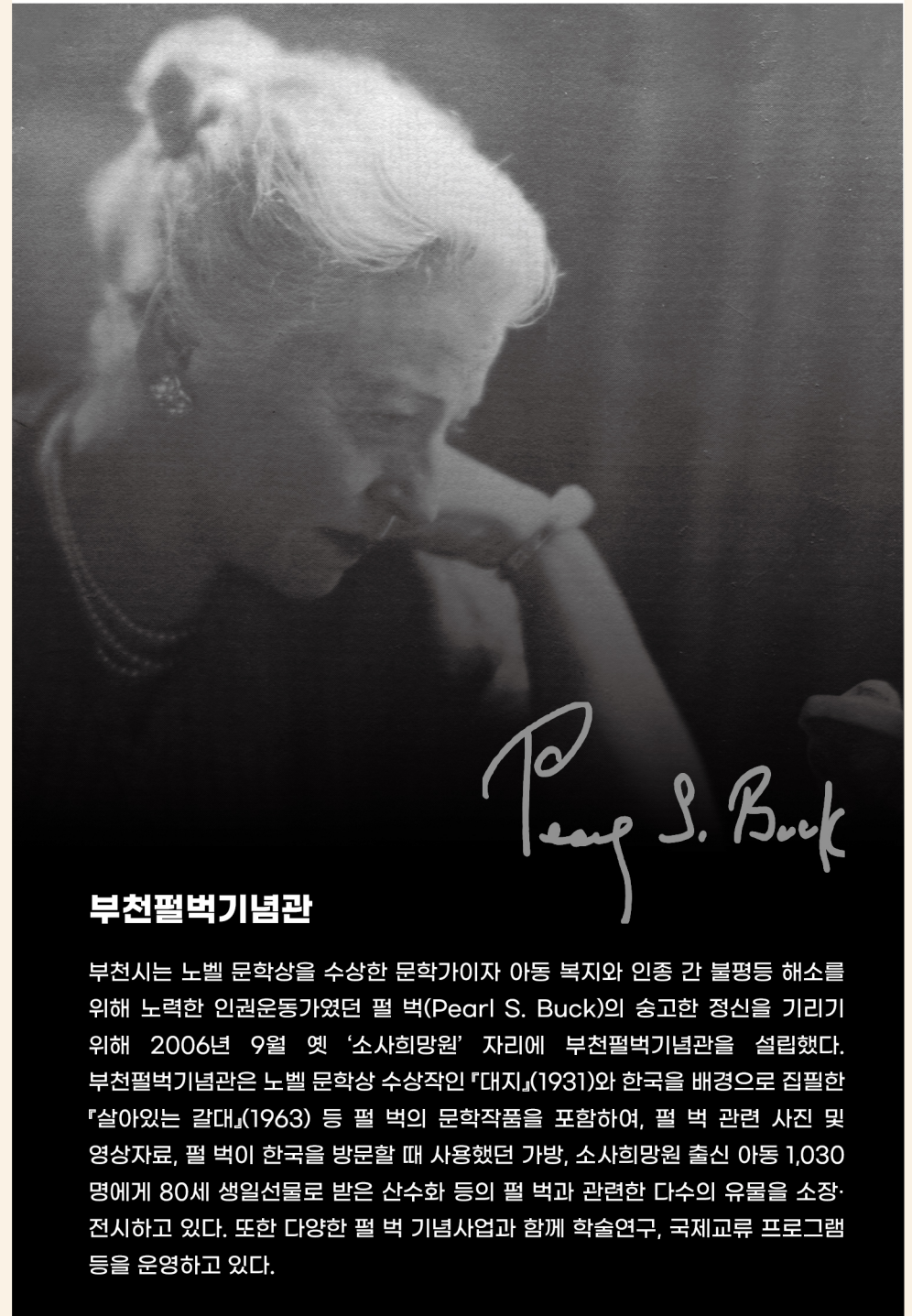
Pearl S. Buck  
(1892. 6. 26. ~ 1973. 3. 6.)

펄 벅은 1892년 6월 26일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 힐스보로에서 태어나 생후 3개월 만에 선교사인 부모님을 따라 미국을 떠나 중국 장쑤성 전장으로 가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대학 진학을 위해 미국으로 돌아간 펄 벅은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와 난징대학교에서 영문학을 가르치며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 결과 1931년 중국의 독특한 문화를 배경으로 중국인들의 생활상을 그린 소설 『대지』로 미국 여성 중 최초로 풀리처상과 노벨 문학상을 모두 받았다.

펄 벅은 활발한 집필활동을 하면서도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인권운동가로 활동하였다. '동서협회'를 설립하여 민족 간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웰컴하우스'를 창설하여 전쟁과 가난으로 부모를 잃은 아시아 지역의 어린이들을 미국으로 입양시켜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힘썼다. 또한 전쟁 중 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미군 병사들의 아이로 태어난 아메라시안을 돕기 위해 '펄벅재단'을 설립하였다. 1965년 펄벅재단 한국지부가 설립되었고, 1967년 부천(소사)에 소사회망원을 세웠다.

1960년부터 총 8번의 한국 방문을 통해 한국의 혼혈아동과 전쟁고아를 돌보았던 펄벅은 한국인 혼혈아동 줄리헤닝(구수이)을 입양했으며, 김말동, 한무숙, 김동리 등 한국의 문인은 물론 조선일보 이규태 기자와도 교류를 맺었다. 1963년에는 한국을 배경으로 『살아있는 갈대』를 집필하고, 영문학자 장왕록의 번역으로 한국과 미국에 동시 출간하였다. 이 외에도 한국을 배경으로 『매튜, 마크, 루크, 존』(1967), 『새해』(1968) 등을 집필하며 한국과 혼혈아동에 관한 관심을 작품으로 보여주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1967년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펄 벅에게 대한민국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하였으며, 1968년 서울시에서는 펄 벅에게 '최진주'라는 한국식 이름이 적힌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였다.

펄 벅은 평생 소설, 수필, 평론, 아동서적 등 80여 편의 작품을 집필했으며, 전 세계 혼혈아동을 위한 차별 없는 사랑을 몸소 실천하다가 1973년 3월 6일 81세로 세상을 떠나 그녀의 고향인 그린힐스 농장에 안장되었다.



### 부천펄벅기념관

부천시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문학가이자 아동 복지와 인종 간 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력한 인권운동가였던 펄 벅(Pearl S. Buck)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2006년 9월 옛 '소사회망원' 자리에 부천펄벅기념관을 설립했다. 부천펄벅기념관은 노벨 문학상 수상작인 『대지』(1931)와 한국을 배경으로 집필한 『살아있는 갈대』(1963) 등 펄 벅의 문학작품을 포함하여, 펄 벅 관련 사진 및 영상자료, 펄 벅이 한국을 방문할 때 사용했던 가방, 소사회망원 출신 아동 1,030 명에게 80세 생일선물로 받은 산수화 등의 펄 벅과 관련한 다수의 유물을 소장·전시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펄 벅 기념사업과 함께 학술연구, 국제교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 펼벽 문학상 심사를 마치고



심사위원 **간호윤, 김성배, 우형숙, 유국환**

먼저 초등부터 청년부까지 응모해 준 모든 응모자에게 감사를 표한다. 올해는 작년에 비하여 수작(秀作)이 줄어든 느낌이다. 초등 대상을 받은 <무지개>는 올해 주제인 '다문화'를 빨주노초파남보 무지개 색깔로 비빔밥을 만들었다는 점이 참신하다는 평을 받았다.

중등부에서는 소설 <냄새지도>가 좋은 평을 받았다. '냄새'로 다문화를 표현하였다는 점이 독특했다. 고등부의 소설 <미르>는 창의력과 상상력이 아주 뛰어났다. 특히 SF적인 요소가 흥미로움을 더했다는 게 심사위원들의 공통된 평이었다.

마지막으로 <파트라슈>, <메가헤르츠>, <육조> 등으로 청년부의 대상으로 선정된 시는 시어와 기교, 창의성과 상상력이 돋보였다. '다문화'라는 주제와 거리가 먼 듯한 인상과 '절망'과 '소외'의 시어들로 심사위원들의 응성거림[?]이 있었지만, 시재(詩才)가 보이고 창의성과 상상력이 뛰어나 선정하였다.

글을 꼼꼼 살펴보면 첫째 글재주로 쓴 글, 둘째 글쓰기 기술을 습득하여 쓴 글, 셋째 마음으로 쓴 글이 보인다. 첫째와 둘째는 사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저 글쓰기 재주로 문장을 희롱하고, 글쓰기 구성 방법에 맞추어 국수 기계로 국숫발 뽑듯 하면 된다. 이른바 뽀내는 글발도 있고 구성도 나무랄 데 없으나 마음, 즉 글을 쓰려는 진정성이 없다. 재치 문답과 요설과 재담이 설레발을 치고 경직된 어휘들만이 기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뿐이다. 글 치장만 요란한 '포로노성 글'과 인간으로서 모양만 갖춘 '로보트성 글'은 여기서 나온다.

짙은 화장으로 치장했으니 마음이 없는 여인을 사랑할 사내가 없듯, 억센 근육과 딱 벌어진 어깨의 근육질 몸매이나 차디찬 심장만이 뛰는 사내를 사랑할 여인도 없다. 잠시 눈길을 주었다가도 걸꾸림을 알아챈 독자는 이내 돌아앉는다. 이런 글들은 대개 허섭스레기가 된다. 그 래 글쓰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셋째이다. 셋째는 재주와 기술이 아닌 마음이다. 이태준 선생은 이제는 글쓰기의 정전이 되어버린 《문장강화》에서 “글은 아무리 소품이든 대작이든 마치 개미면 개미, 호랑이면 호랑이처럼, 머리가 있고 꼬리가 있는, 일종의 생명체이기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글이 생명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 눈과 귀로 낚아 온 사물을 마음으로 조리할 줄 아는 글쓰기에 대한 정열, 진정성이 있어야만 글은 생명력을 얻는다. 글쓰기의 문제의식, 풀이하여 '글은 왜 쓰는가?'의 출발점은 그래서 이 마음이어야 한다. 펼 벽 여사의 글줄에는 이 마음이 곳곳에 녹아들어 있다.

내년에는 이 '마음'이 가득 찬 글들을 보고 싶다.

2025년 8월 10일, 심사위원을 대표하여 인하대학교 프런티어학부 초빙교수 **간호윤** 씀

## 목차

청년부				
대상	정은채	중앙대학	육조의 3편	06p~15p
최우수상	박재운	우석대학교	경계 없는 우주 외 4편	16p~19p
우수상	정우진		하나의 식탁, 두 개의 말 외 2편	20p~29p
고등부				
대상	김지은	경기외국어고등학교	미르	30p~41p
최우수상	최혜연	정의여자고등학교	태양의 그늘	42p~49p
우수상	김나영	삼성여자고등학교	혈연 외 가족	50p~52p
우수상	조수영	아름고등학교	보편	53p~54p
중등부				
대상	민희주	호수돈여자중학교	냄새지도	55p~64p
최우수상	박수빈	원주여자중학교	시선의 전환	65p
우수상	김단아	충남여자중학교	세 번 여를, 첫 번째 친구	66p~67p
우수상	정초요	반곡중학교	팔빙수	68p~69p
장려상	김도혜	도담중학교	이태원 버스킹	70p
장려상	오은기	원주여자중학교	모두 다른, 모두 친구	71p
장려상	이소원	천안월봉중학교	스콜	72p
초등부				
대상	허예준	솔샘초등학교	무지개	73p
최우수상	임유림	반곡초등학교	48색 색연필	74p~76p
우수상	원 현	삼육초등학교	다양한 소금 향არი	77p
우수상	박은유	삼육초등학교	반짝반짝	78p
우수상	정지유	잠현초등학교	다들수록 존중하자	79p
우수상	정원혁	장동초등학교	물감 외 2편	80p
장려상	류승현	서울용산국제학교	서로 달라도 존중하는 마음	81p
장려상	최준희	명륜초등학교	과자파티	82p
장려상	임주이	서울가재울초등학교	다문화가족의 장점을 알려드립니다	83p
장려상	장연서	봉대초등학교	모여서 더 맛있는 세상	84p
장려상	김가빈	토평초등학교	작은 손, 큰 용기 외 3편	85p
장려상	최서연	삼육초등학교	우리 반은 달라서 특별해요	86p
장려상	박수진	만대초등학교	우리 가족은 초코우유	87p
장려상	김율곡	서대전초등학교	이웃집의 낯선 향신료	88p
장려상	임소울	삼육초등학교	차별의 이유	89p
장려상	김 윤	인천신선초등학교	다문화 사회	90p~92p

# 육조

청년부 대상, 정은채, 중앙대학교

육조 가득 물을 받고 누웠다  
머리를 쳐박는다

내 비명이 내게만 들리지 않는  
나는 그런 이질이 좋다

늦저녁 찾은 일기를 펼쳤다

전 죽어 있어요  
그런 문장을 찾았다  
언제 죽었더라  
기억나지 않아요  
바닥에 누워서  
나는 마치 익사했어  
마치?

다시 읽는다 다시 읽을 때면  
어릴 적 단어로만 적힌 사랑이 있었고  
형식적인 삶의 규칙이 있었고  
온갖 추상의 무덤이 있었다

일기로는 무엇이든 쓸 수 있잖아

있어 보이는 체

마치 익사하기 전까지  
발을 버둥대는 식으로

일기장에서 뿜어져나온 글자들이  
거뭇하게 내 몸마다 피어오른다  
무덤의 봉분처럼 나를 뒤덮는다

전 죽어있어요 그런 문장이  
한 줄기처럼 허공을 횡행하면

언제였더라  
기억나지 않아요

# 108.이러나 네가 헤르츠

청년부 대상, 정은채, 중앙대학교

I

가본 적 없는 집에 네가 산다  
너무 멀지만 그 집엔  
별이 있다고 했다

그럼 네 집은 별이 사는 집이구나  
그랬더니 네가 아니라고 고갯짓을  
마구 했지 했지

죽었어 별은

별

별

별

별

별

별

별 - 우리 집에 있는 별은 이쯤

별

별

별이 별이 되어 하늘로 돌아갔다는 말을 하는 네가 이상하다  
그래서 별이 사는 집이 아니라 있는 집  
넌 강조하듯 다시 한 번 말을 한다  
난 너무 멀어서 가본 적 없는 집이니까  
응 알았어 하고 고개를 끄덕인다

산 사람만이 집을 가질 수 있어  
언제부터 그랬더라  
그야 아주 오래 전부터

별이 부서지던 시절을 떠올린다  
내게는 너무 먼 곳이다  
네가 사는 집은 너무 멀다

죽었어 별은

떨어져서 산산조각  
차가운 별을 들어서  
먹는 너를 떠올린다

손을 뻗어보면  
자꾸만 뜨거운 게 엉겨붙는다

하늘을 올려다본다

\*

II

에드워드는 신디에게 인사를 건넨다  
네게 도움이 될 거야  
하고 건네준 건 업총

우리가 왜 헤어져야 해  
수소가 나를 불렀거든  
그 망할 놈의 수소 좇까라 그래  
나는 수소를 먹어야만 해  
가르고 합치고 짓이기고 찢어서?  
수소를 내 안에 넣을 거야

그건 먹는 게 아니잖아

먹는 게 맞아

에드워드는 결국 문지방을 넘는다 살아있는 것들이 어딘가에 있었고 신디는 집에 남기로 했다  
업총을 들었고 결국 가만히 들여다 보다가 눈을 서서히 크게 떴다 총구를 먹기로 했다  
에드워드가 수소를 먹는다면 따먹는다면 그렇다면 나는 총구를 빨아서 세워볼까

\*

III

언제부터 집이 살아있는 자들의 것이었는지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령  
고독사의 가장 주된 실현 장소가 집인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떤 별은 말하곤  
합니다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이 고작 몸을 섞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죽음이라는 것도 별반  
다를 게 없지 않을까 그런 의문을 제기한다는 말인데요

라디오가 시끄럽게 떠들었다  
창 밖으로 떨어지는 유성우를 바라본다  
네가 사는 곳이 어디일지 상상한다

나의 사는 집은 꽃 지는 바다  
이런 노래 가사가 있지 않았나 하고 생각한다  
꽃 지는 바다에 대해서 생각한다

가랑이를 벌리고 선 작은 창녀를 떠올린다

우리는 별에 대해 고민하고 애써야 합니다 작년엔 신디가 죽었고 올해에는 에디워드가 수소를  
따먹다 죽었다죠 요즘 너무나 많은 별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책을 세워야만 합니다  
이를테면 별의 고독사 방지 위원회라던가 그런 류의 이름을 짓자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또  
새로운 별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출산율을 높이려면 우린 서로를 먹어야죠

라디오는 여전히 시끄럽다

\*

IV

망가진 이름에 대해 묻는다  
 죽은 별을 알고 있어?  
 돌아온 편지 위로는 별가루가 뺨곡했다  
 나는 이미 그걸 다 먹었어  
 먹다니 무슨 의미야

라디오는 꺼졌지만 나는 여전히 물어야만 했다  
 입으로 먹는 일  
 아 둘다 입이구나

황급히 편지를 수정한다

쓸데 없는 은유가 너무나 많이 피어있다는 생각을 한다  
 우리는 왜 이걸 별이라고 불렀지  
 조각조각난 별  
 별가루를 헛바닥으로 살짝 찍어본다  
 비리고 쓴 맛이 났다

집은 아직도 너무 고요하다  
 라디오를 다시 켜야만하겠다

# 파트라슈

청년부 대상, 정은채, 중앙대학교

엄마 나 머리를 잃어버렸어  
 파트라슈가 말했다 그러니까 이젠  
 머리가 없는  
 파트라슈라고 하기 애매한  
 그애가

나가서 좀 찾아보지 그래  
 문 밖은 무서운걸  
 모두 혼자 서는 법을 배워야 해  
 나는 지금 잘 서있어 엄마  
 네가 잠결에 심어났을 지도 모르지  
 발은 죄다 가뭄인데 말이야  
 머리가 심겨서 무력무력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  
 비가 안왔지  
 물이 없지 피부가 바싹 마를 정도로

회철이 까진 흰 벽 냉장고 웅웅대는 소리 아무것도 없을텐데 냉장고 웅웅대는 소리 아무것도  
 심지 않은 깡통 화분 물이 없어 메마른 흙 이제 쓰지 않는 장화 옷걸이에 걸린 모자 파트라슈가  
 쓸 수 없는 모자 모자 문고리를 돌려 밀고 문지방을 넘고 문제를 생각하고 가뭄이 든 여기는  
 메말라있고

멀리서 부르는 소리 돌아보지 못 해, 그애 그러니까 아마도

오즈?

뭉그러진 절단면이 미묘하게 아문다  
 나는 어디에 있어

제임스가 뒤돌아 본다 그러니까  
뒤돌아 본다고 하기엔 애매한  
무형이  
머리가  
머리가?  
없잖아  
너  
머  
리

레이먼드가  
엄마가 보고 싶어  
라고 말했다  
근데 너 입도 없고 귀도 없고 눈도 없고 말이야

두고 온 모자가 있어  
우리는 어떻게 갈등을 느꼈더라  
아빠라는 단어가 적힌 시계가 있어  
새빨간 동그라미 스티커를 붙여둔 물뿌리개와  
삼각형 모양으로 삭아버린 철판이 있어

머리로 느낄 수 있는 흔적이 있었었었어

종소리가 들리면 무작정 바라봤던 너를 기억해 파트라슈 하고 부르던 너를 기억해 개처럼  
기었던 너를 기억해 지난 밤 얼굴을 씻던 너를 기억해  
이제 기억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지난 낮이잖아

엄마 나 머리를 잊어버렸어  
문 너머를 보면서 외치는  
그애가  
그런데 누구였지

너

## 브릭스 매너리즘

청년부 대상, 정은채, 중앙대학교

복숭아를 선물받았다  
며칠 전부터 먹고 싶다고  
네가 노래를 불렀잖아 복숭아  
비닐봉지를 네 앞에 툭 던지면  
물렁한 복숭아 옆구리가 팍 터지면서 즙이 흘러나왔다

너는 옆구리 터진 복숭아를 들고  
크게 한 입 베어문다

이와 이가 벌어진 틈 사이로 복숭아 껍질이 달라붙는다 과즙이 시고 눅눅하고 끈적한 과즙이  
흰 와이셔츠를 타고 흐른다 헛바닥과 과육이 구분되지 않고 한데 뒤섞이면 과즙이 점점  
비려진다

달아? 묻는다

너는 또  
몇 브릭스야? 묻는다

비닐봉지가 맥없이 고꾸라진다  
안에서 냄새가 난다  
과일 삭는 시큼한 냄새가 난다  
에어컨은 뽁뽁 아직 돌아가고 탁상 위로 과즙이 튄다 넌 한 입 먹은 복숭아를 내게 드민다  
과육이 선명하게 이건 결코 달지 않아 보여주는 것처럼 차라리 노래를 불러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이젠 할 말을 해야 한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느냐고

# 경계 없는 우주



청년부 최우수상, **박채운**, 육군 22사단 56여단 의무중대

경계는 바람에 씻겨  
모서리를 잃은 돌,  
고요히 땅에 누워  
낮은 지도를 삼킨다

두 강물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얼룩진 빛과 그림자를 길어 올린다  
물이 땅을 적시듯,  
서로의 자국 위를 흐르고  
겹겹이 쌓인 색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지형을 만든다

언어는 몸을 스쳐 지나가며  
깊은 바다 밑에 내려앉는 돌멩이 같다  
그곳,  
말해지지 않은 기억들이 쉬는 곳에서  
파편들은 빛을 잃고 무심히 머문다

시간은 접힌 종잇장처럼  
겹겹이 쌓여  
과거와 미래, 그리고 지금의 파편을 꿰맨다  
내부에 숨은 작은 우주가  
흔들리고, 번져간다

보이지 않는 무게들이  
숨결 사이를 메우며  
서로 다른 색조의 파편들이  
끝없이 춤을 춘다

혼혈이라는 말은  
시간의 거울 속에서 흐려졌다  
안에 깃든 목소리들은  
침묵과 소음 사이,  
부서진 빛과 그림자 사이에  
새로운 우주를 짓는다

존재는 부서지고,  
흔들리고,  
재조합되며  
끊임없이 자라난다

말 없는 목소리가  
숨겨진 언어의 교차점에서  
시간과 함께  
진동한다

그리움은 바람에 흩날리지만  
조각들은 서로를 감싸 안으며  
낮선 땅 위에  
느리게, 단단히  
자리를 잡는다

경계 없는 존재의 무게가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을 그리며  
서로의 몸에 새겨진 문장들이  
조용히 번역된다

한 몸 안에 스며든  
두 세계는  
서로를 닮아가며  
서로를 다시 쓴다

혼혈이라는 말은 사라져도  
의미는 사라지지 않았다  
언어 너머의 무늬가 되어  
시간을 타고 흐른다

존재란,  
말 없이도 말하는 것  
부서짐과 재생을 반복하며  
끝없이 펼쳐지는  
내면의 우주다

# 아홉 번째 설날

청년부 최우수상, 박채운, 육군 22사단 56여단 의무중대

붉은 등불이 종잇장 뒤에서 숨죽이고,  
시간은 접하지 않은 종잇조각처럼  
어딘가 휘청이며 말을 더듬는다

지저분한 종이,  
구겨진 틈새를 헤엄치는 웃음,  
낮선 음절들은 입술 가장자리에서  
뿌리 내리지 못한 새싹처럼 흔들린다

주름진 식탁보 위,  
고향의 김치와 낮선 바람이  
느슨한 실타래처럼 서로를 풀고 감는다  
시간은 무거운 돌멩이처럼  
소리 없이 가라앉는다

나무문 사이로 숨어든 바람은  
흐릿한 언어 대신 그림자를 쏟아내고,  
그림자들은 강물의 어긋난 지류처럼  
방 안을 뒤척인다

아이의 눈동자는  
빛과 어둠 사이를 부유하며  
형체 없는 무언가를 붙잡으려 안간힘이다

설날은 귀향이라 부르기엔 너무 모호해서,  
누군가는 이미 떠난 채이고  
누군가는 기억의 미로에 갇혀  
서로의 그림자를 쫓는다

입 안에서 무심히 돌고 도는 말들은  
서로 다른 호흡 속에 떠다니며  
아직 부르지 않은 이름처럼  
공기 중에 머문다

# 통역기 너머의 마음

청년부 최우수상, 박채운, 육군 22사단 56여단 의무중대

숨 막히는 공간,  
철의 심장박동이  
피부 아래 맥박으로 스며든다  
기억 없는 금속 덩어리가  
하루를 반복하며  
말보다 먼저 녹아내린다

말은 여전히 흩어지고  
고요한 파편들로 쪼개져  
어딘가에 닿으려 애쓰지만  
입술에 걸린 잔상들은  
마치 오래된 조약돌처럼  
미끄러지고 부서진다

손가락 끝은  
차가운 언어를 떠올리며  
그늘진 틈을 더듬는다  
입술과 혀 사이  
서로 부딪히는 말의 파편들  
사이로 스며드는 불협화음은  
밤의 폐허처럼 조용하다

쉬는 시간,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멀어지고  
작은 발자국만이  
이질적인 리듬으로 겹겹이 쌓인다  
무거운 침묵이  
먼 기억처럼 내려앉고

기계가 멈출 때  
어둠은 서서히 번져  
부서진 단어들의 잔해 위에  
느리게 그림자를 드리운다

입 안의 소리는  
낯은 비늘처럼 떨어지고  
언어가 아닌,  
몸의 무게가 되어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처럼  
조용히 남는다

여기선  
모든 말이 옷을 갈아입고  
낮선 살갓을 스치지만  
서로의 뼈는 닿지 않는다  
말과 말,  
숨과 숨 사이  
끊어진 시간들이  
조용히 피어난다

# 무국적 맛의 시간

청년부 최우수상, 박채운, 육군 22사단 55여단 의무중대

고모는 여권보다 먼저  
절인 배추를 꾸렸다  
고춧가루 몇 줌,  
말이 들지 않는 손맛을 이주시켰다

냉장고를 여는 방향은 늘 북쪽이었다  
지도에도 없는 쪽  
윗칸에는 고향을 잊은 장아찌들이 높고  
아랫칸엔 아직 해석되지 않은 무언가가  
얼려 있었다

식초와 설탕을 엇갈린 저녁  
식구들은 조용히 국을 먼저 들이켰고  
젓가락은  
가장 늦게 식은 반찬을 빙 돌아 지나갔다

고모는 모른 척했다  
접시의 중심을 비켜 있는 마지막 한 조각,  
조용한 잔여물이 오래도록 남아 있었다  
그건 그녀의 말투를 닮았다

그녀는 배추를 접으며  
자신의 성씨를 얇게 저며냈다  
젓갈이 삭는 동안  
어떤 말도 삭아들었다  
시간이 아니라 침묵이 발효되었다

명절이면

고모는 뒤늦게 절을 올렸다  
무릎보다 마음이 먼저 접혔다  
그 느낌 속에  
아무도 듣지 못한 예가 있었다

그리고 어느 해,  
식탁 한가운데 낯선 그릇  
무생채와 브로콜리를 섞은 것  
아무도 먹지 않았지만  
다 비워진 접시

그날 밤, 고모는  
김치통의 김을 걷어내고  
뚜껑 안쪽에 몰래  
글자를 하나 적었을 것이다  
누구도 부르지 않은 이름,  
무처럼 번지는 발음

다시 배추를 겹겹이 포개어  
익히고  
덧고  
남겼다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냉장고의 가장 깊은 칸  
아무도 열지 않는 방향에

# 접힌 이름

청년부 최우수상, 박채운, 육군 22사단 56여단 의무중대

출석부는  
가장 긴 정적을 거쳐 한 소리로 도착했다  
모음이 늘어지고, 자음은 낯선 방향으로  
휘었다  
고개보다 먼저 공기가 움직였고  
창밖 나무조차  
잠시 숨을 멈춘 것 같았다

이름은 다시 만들어졌다  
입 안에서 둥글게 깎이고  
매끈한 말로 갈아입은 뒤  
첫 수업보다 먼저 잊혔다  
쉽게 닳고, 금방 식는  
말은 오래 남지 않았다

종이 위엔  
무늬 대신 공백이 적혔다  
무엇을 뜻하느냐는 질문에  
네 귀퉁이를 접고  
손바닥보다 작은 언어를 만들었다  
접힌 자리마다 소리의 숨결이 꺼졌다

쉬는 시간,  
운동장 가장자리에는  
부르지 않아도 오는 이름이 있었고  
불리지 않아도 멀어지는 이름이 있었다  
말보다 빠른 발소리,  
말보다 느린 표정들이 지나갔다

공책의 여백에는  
손가락이 기억하는 방식대로  
문자 아닌 선이 그려졌다  
알파벳과 한글 사이  
잉크가 번질수록  
읽히지 않는 무언가가 떠올랐다

말은 점점 뒤에서 나기 시작했다  
질문보다 늦은 대답은  
자주 눈꺼풀 아래에서 머물렀고  
발음되지 않은 말이  
더 오래 귀에 남는 경우가 있었다

거울 앞의 어느 저녁  
아무도 없는 방에서  
입을 열지 않은 채  
이름을 한 번,  
속으로만 불러본다

그건 부름이 아니라  
남음이었다

불리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  
지워지지 않고 다만  
다른 언어로 접힌 것  
언어보다 오래,  
입 안의 기억처럼  
머물러 있는 음

# 하나의 식탁, 두 개의 말

청년부 우수상, 정우진

달걀말이를 뒤집고  
플랜테인을 굽는다  
팬 위엔 두 나라의 시간,  
기름처럼 얇게 번지고

“간은 괜찮아?”  
“It's perfect.”  
말은 다르지만  
맛은, 웃음으로 합의된다

젓가락 옆 포크  
김치 옆 치킨  
그 작은 식탁 위  
우리는 서로를 조금씩 채운다

“엄마는 이거 좋아했어.”

식탁에 앉은 건  
두 사람이지만  
오늘 하루를 버틴 건  
서로의 말 한마디였다

식사라는 건, 결국  
하루를 살아낸 사람끼리  
같이 나누는 축제니까.  
네가 말하면  
나는  
너의 기억까지 함께 먹는다

나는 아직,  
‘Fufu’를 잘 못 뜯고  
너는  
멸치볶음에서 자꾸 멸치를 골라내지만  
그 손끝이 귀여워서  
우리는  
“사랑해”라는 단어로 계속 살아간다

식탁에 앉은 건  
두 사람이지만  
오늘 하루를 버틴 건  
서로의 말 한마디였다

식사라는 건, 결국  
하루를 살아낸 사람끼리  
같이 나누는 축제니까.

# You Say Tomorrow, I Say 내일

청년부 우수상, 정우진

“You are my sunshine,”  
엄마는 아침마다 노래했다  
햇살보다 먼저,  
엄마 목소리가 나를 깨웠다  
나는 아직 모른다  
어느 나라 말을 먼저 배울지,  
하지만 확실한 건  
내 첫 단어는 국기가 아닌 사랑이었다  
가끔, 나는 엄마 말투로 “아빠!” 하고  
아빠 말투로 “엄마!” 한다  
함께 닿은 소리에 둘 다 웃는다  
그리고 나도 웃는다  
엄마는 “Tomorrow will be better,”  
아빠는 “내일은 괜찮을 거야,”  
그렇게 말하며  
나는 두 사람 사이에서  
하나의 마음을 배운다  
사랑은 국경을 모르고 언어는 품을 넓힌다  
나는 그 둘의 말을 배운다  
아빠는 그 옆에서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우리 딸, 오늘도 햇살이네”  
엄마는 영어로 웃고  
아빠는 한국어로 미소 짓는다

나는 둘 사이에서 단어를 하나씩 줍는다  
Mom's "hug" Dad's "안아줘"  
그 두 언어는, 하나의 온기였다

엄마는 bedtime story를 읽어줄 때  
“I love you more than all the stars,”  
속삭이곤 했다

아빠는 그 옆에서 “별보다 더 사랑해”  
같은 말이지만  
다른 억양으로, 같은 마음으로

나는 아직 모른다  
어느 나라 말을 먼저 배울지,  
하지만 확실한 건 내 첫 단어는  
국기가 아닌 사랑이었다

가끔,  
나는 엄마 말투로 “아빠!” 하고  
아빠 말투로 “엄마!” 한다  
함께 닿은 소리에 둘 다 웃는다  
그리고 나도 웃는다  
엄마는 “Tomorrow will be better,”  
아빠는 “내일은 괜찮을 거야,”  
그렇게 말하며  
나는 두 사람 사이에서  
하나의 마음을 배운다

사랑은 국경을 모르고  
언어는 품을 넓힌다  
나는 그 둘의 말을 배운다

# 함께 먹는 레벨 테스트

청년부 우수상, 정우진

“초콜릿색이래!”  
“머리 완전 양털 같아!”  
애들이 킁킁 웃었고  
나는 웃는 척했지만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 ‘꼭’하고 부서졌다

그때,  
복도 끝에서 우진이가 달려왔다  
급식쟁반도 안 내려놓고

“야!”

그 순간  
도시락 김이 바람에 날아가  
선생님 얼굴에 붙었고  
우린 다 같이 웃었다

그날부터,  
우진이는 내 옆자리가 됐다  
누가 또 뭐라 하면  
“에바는 너희랑 다르게 영어 잘해서, 유엔  
간다!”  
하고 소리쳤고

나는 한국어로  
“야, 그만해...”  
작게 웃으며 말한다.  
우진이는 소리쳤다

“너네는 밥 먹을 자격도 없어!”  
“뭐?”  
애들이 빙췌고  
우진이는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켰다

“함께 먹는 밥은  
레벨 높은 사람만 먹을 수 있거든.  
애는 레벨 99야. 너네는 3도 안 돼”  
애들이 어리둥절  
나도, 어리둥절  
우진이는 나한테 수줍게 귓속말했다  
“같이 밥 먹자, 나도 레벨 99거든.”

그 순간  
도시락 김이 바람에 날아가  
선생님 얼굴에 붙었고  
우린 다 같이 웃었다

그날부터,  
우진이는 내 옆자리가 됐다  
누가 또 뭐라 하면  
“에바는 너희랑 다르게 영어 잘해서, 유엔  
간다!”  
하고 소리쳤고

나는 한국어로  
“야, 그만해...”  
작게 웃으며 말한다.

# 미르

고등부 대상, 김지은, 경기외국어고등학교

빛, light, 光. 모두 다른 언어로 쓰여 있고, 다르게 읽히지만, 같은 의미를 품고 있었다고 한다.  
나는 이를 이해하지 못했다.

내 이름은 미르이다. 난 우주 개척 선발대에 뽑혀 고아가 된 수백 명의 아이들이 그렇듯이  
정부 소속 고아원에서 자랐다. 이 고아원의 아이들은 부모와 비슷한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여겨져 특별히 더 심한 감시 아래에 자랐다. 우리는 모두 똑같이 행동하기를 강요받았고, 각자  
다른 것이라곤 엄마, 아빠가 남겨준 이름뿐이었다.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된 아이들은 부모님이  
쪽지에 이름을 남겨둔 채 떠났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기억은 없었다. 나 역시 그랬다. 내게  
남겨진 쪽지에는

이름: 미르 <‘용’이라는 순우리말>  
밖에 적혀 있지 않았다.

유일하게 나에게 남겨진 것이었기 때문에 매일 내 이름을 곱씹어보며 그 의미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았지만, 아직까지 성공하지 못했다. 용은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현재  
지구에서는 상상을 위험한 행위로 분류했고, 상상하는 것을 걸리게 된다면 우주 개척 선발대에  
뽑힐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매번 걱정이 앞섰다.

2115년, 지구의 색은 모두 사라졌다. 삼원색인 빨강, 파랑, 노랑부터 보라색까지. 우리에게  
남겨진 세상은 흑백이었다. 지구는 오래전에 색을 잃었고, 사람들은 이에 만족하는 듯했다.  
하늘의 아침과 저녁도 한때에는 찬란한 황금빛으로 물들었다고 하지만, 현재는 회색 구름들로  
가득하다. 봄이 되면 다른 채도의 회색 꽃들이 피어난다. 사람들의 감정도 최대한 배제된 채  
흑백으로 보인다. 부끄러울 때 사람들의 얼굴을 발갱게 달아오르는 것이 아니라, 더 어두운  
회색으로 바뀌고, 안색이 어두워지며 표정이 잘 보이지 않는 경지에 이른다. 지구에서는  
과거에 색과 다름을 인정하지 못해 다툼과 전쟁이 많이 일어났다고 한다. 서로를 혐오하고  
죽이는 데 이르자, 새로운 법이 설립되었다. 지구의 법은 복잡하지만, 모두가 기억하고 있는 제  
1조 1항은 간단하다.

제 1조 1항: 모든 국민은 자신의 색은 버리고, 다름은 지워가며 하나가 되어야 한다.  
모두 같은 옷을 입었고, 같은 언어를 썼고, 감정은 억눌러야 하는 것이었다. ‘다름’이 있는  
세상은 ‘질서가 없다’라고 여겨졌다. 모든 것이 통일된 세상을 사람들은 평화롭다고 했다.  
그러나, 나로서는 뭔가 빠진 것 같은 허전함을 잊어버릴 수 없었다. 보이지도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엄마, 아빠가 네게 마지막으로 남겨준 것이자 유일하게 나를 다르게

만드는 것, 내 이름, 미르. 난 용이 어떻게 생겼을지 평생 알지 못하는 것일까?

유난히 하늘이 어두웠던 그날, 나는 우주 개척 선발대에 뽑혔다. 이름은 번지르르해 보이지만, 난 사실을 알고 있다. 내 엄마와 아빠가 그랬던 것처럼, 나는 지구에서 사회 부적응자였던 것이다. 항상 똑같이 행동하는 것을 어려워했던 나였기에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두려웠다. 아무도 자원하지 않는 이 선발대에는 나처럼 독특한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가득할 것이다. 흔히 ‘평화를 깨트리는 자들’이라고 불리는 이들과 나는 어디에 가고 어떻게 될 것인지 걱정이 앞섰다.

출발하기 전에 모인 인원들은 생각보다 평범해 보였다. 물론, 같은 옷을 입고 같은 곳에 같은 자세로 앉아 있어야 했기 때문에 당연한 일일 수도 있다. 그래도 나는 좀 더 특별한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조용한 분위기에 앉아 있던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모두 같은 것을 추구하라고 주입 받은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곳을 개척할 수 있겠는가? 지구에서조차 ‘부적응자’로 분류된 우리가 우주에서는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우리를 이해하려는 노력 없이 그저 소외시키는 것만 같았다.

나와 우주 개척자들은 여러 밤을 우주선에서 지냈다. 우주선 안에서 말하는 것은 금지되어서 나는 외롭게 캄캄한 우주를 보며 하루 하루를 보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지 까먹을 때쯤 칼레오 행성에 도착했다. 칼레오 행성은 저 멀리 우주에서도 빛이 났기 때문에 지나칠 수 없었다. 우리는 흑백의 시야로 이 행성을 관찰했다. 빛이 났을 뿐, 칼레오 행성도 지구랑 별로 다르지는 않았다. 회색 구름과 꽃, 풀들이 우리를 찬찬히 바라보고 있었다. 아침에 뜨는 해는 밝기를 높일 뿐, 세상을 황금빛으로 물들이지는 않았다. 칼레오 행성에 도착한 둘째 날, 우리는 탐사를 시작했다. 나는 조용히 지냈고, 다른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서 행성을 관찰했다. 반나절을 계속 걷다 보니 숨이 찼고, 바위에 기대어 쉬어가기로 했다. 그때였다. 무언가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다. 열은 회색의 나보다 작은 키의 무언가가 서 있었다. 그는 나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고,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의 눈은 무언가 말하는 듯했다. 그의 따스한 눈빛과 함께 가슴 부위의 파란 빛은 같은 박자로 깜빡였다. 그것의 언어인지, 신호인지는 모르겠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다. 우리는 끝내 악수를 하거나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다음에 무언가를 만났을 때도 우리는 아무런 얘기를 나누지 않았다. 서로의 눈만 바라본 채 나란히 앉아 있었다. 처음 만난 그 바위에 기대어.

그때, 무언가가 흠에 손끝을 문지르기 시작했다. 아니다. 자세히 보니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흠에 선들은 입과 얼굴, 단발머리를 이루었다. 나를 그린 것 같았다. 숨이 멎었다. 상상하는 것이 금지되었던 지구에서는 그림 그리는 것 또한 금지되어있었기 때문에 나는 한 번도 나의 모습을 그려볼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비록 흑백으로만 그려져 있었지만, 부드러운 선과 거친 선들이 살아나 내 심장을 뛰게 했다. 무언가는 자신이 손을 차분히 내 초상화에 댔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그 옆에 그렸다. 우리는 다른 모양의 눈과 윤곽, 머리카락 길이를 가지고

있었지만, 표정만은 같았다. 그림 속 우리는 마주 보며 웃고 있었다. 그제서야 나는 내가 웃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항상 무표정하고 무미건조하게 살던 나의 인생 첫 웃음이었다. 그리고, 그제서야 느꼈다. 다름은 끔찍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아닌, 아름다운 것이라고. 통일된 모습의 지구에서는 한 번도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못했던 것 같다. 그런데, 말 없이 우리의 다름을 행복한 모습으로 그려준 무언가는 내 생각에 변화를 줬다. 그는 처음으로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준 것이었다. 지구에서는 통일성을 갈등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우리의 개성을 통제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 같다. 편견이야말로 우리가 깨야 할 벽이었다. 다른 문화, 다른 생김새, 다른 성격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편견 말이다.

그제서야 나는 색을 조금씩 느낄 수 있었다. 아직도 태양의 색은 밋밋한 회색이었지만, 따스한 온도가 느껴졌다. 무언가의 말은 들리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느껴졌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떤 언어를 쓰는지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무언가가 떠나고도 한참을 그 그림 옆에 앉아 있었다. 나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 들여준 무언가에게 고맙다. 지구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시원한 산들바람이 내 손을 스쳐 지나갔다.

이내 설명할 수 없는 감각이 느껴졌다. 보여줬다는 것이 더 정확하겠다. 저 바위 너머 경계선에, 무언가의 그림 끝에 황금빛이 보였다. 서서히 퍼져 가는 황금빛은 용의 형태로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온 우주를 집어삼켰고 나는 가만히 앉아 그 황홀한 감정에 눈을 떼지 못했다. 드디어 색이 보였다. 드디어 용을 보았다. 무언가는 나에게 누군가를 편견 없이 받아들일 마음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잃어버렸다고 느낀 것들을 채워주었다.

다음날에도 나는 황금빛 용을 보기 위해서 같은 자리에 앉아 무언가를 기다렸다. 무언가는 내가 멍을 때리고 있는 사이에 내 앞에 서 있었다. 내가 먼저 말을 꺼내려는 순간, 무언가는 자신의 가슴을 가리키며 ‘루에’라고 했다. 무언가의 이름인 것 같았다. 나는 루에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처음으로 번갈아가며 불러주었다.

“루-  
미-  
에-  
르.

서로 다른 언어, 서로 다른 생김새이지만 빛이라는 의미를 품은 이름이었다. 엄마, 아빠는 알았던 것일까? 우리가 언젠가 세상의 색깔을 모두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우리는 그날도 바위에 기대어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칼레오 행성을 바라봤다. 청룡이 태양에게 인사를 하고, 바위들은 빛을 반사하며 황금빛 용에게 인사를 건넸다. 말없이 일몰을 바라보며 우리는 색깔을 온몸으로 흡수했다.

# 태양의 그늘

## 고등부 최우수상, 최혜연, 정의여자고등학교

대기실 복도는 예상 질문지를 들고 중얼거리는 학생들로 북적였다. 험뻑이며 급히 도착한 지금은, 나도 긴장을 최대한 감춰야 했다. 다행히 내 차례는 아직이었다. 안도의 숨을 길게 내쉬려는 순간, 내 번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떨리는 마음을 진정할 틈도 없이 벌떡 일어나 면접장으로 들어서야 했다.

면접관으로 앉은 분들은 나의 학생부를 보고 계셨다. 그중에서도 나이가 있어 보이는 교수님은 나를 보며 물어보셨다.

“여학생 이름이 홍도네요. 집안 돌림자로 지었나 봐요.”

긴장감을 풀어주려고 하는 첫 질문이었지만, 나에게서는 예상 밖이라 더 당황스러웠다. 돌림자가 뭐지? 나도 모르는 단어였다. 그러나 질문에는 솔직하게 대답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들었다.

“태양을 따르는 해바라기와, ‘홍도야 울지마라’ 노래를 좋아하는 엄마가 지어주셨습니다.”

정면으로 앉았던 면접관 교수님들은 다 같이 웃었다. 엉뚱하게 들렸겠지만 나는 있는 사실 그대로 대답했다. 이번엔 가운데 젊은 여교수님이 질문하셨다.

“홍도 학생이 지원한 학과는 사회복지학과죠. 사회복지사가 갖춰야 할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리에서 일어나 나는 미리 준비했던 모범 답안을 또박또박 대답했다.

“네, 가장 중요한 첫 번째로는 경청과 공감입니다. 두 번째로는 클라이언트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긍정적 사고와 다양한 지식 기반으로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어요. 앉으세요.”

준비했던 답안을 막힘없이 했다는 생각으로 안도감이 들었다. 짧은 콧김을 내쉬며 자리에 앉으려고 할 때였다. 숨돌릴 틈도 없이 압박하는 질문이 공기를 찢으며 내 귓가로 들렸다.

“최근 우리나라에도 다문화 가족과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 속에서 문화적인 충돌과 갈등도 발생하잖아요. 이럴 경우, 홍도 학생이라면 어떤 방식으로 풀어갈 수 있을까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입술은 파르르 떨렸다.

한국에서 나는 비인가 대안학교를 다녔다. 친한 친구도 없었지만, 반 친구들과 어울려 지내지 못했다. 사회복지사가 꿈이라면서 학교라는 작은 사회에서 벌어지는 갈등도 회피하기 바빴던 나였다.

그러나 이 자리는 진심을 보여줘야 했다. 마음을 다잡으려고 자리에서 호기롭게 일어났지만, 생각과 달리 말끝은 얼버무렸다.

“중국에서 왔다고 무시하는 친구들과 싸우지 않았고 참았습니다. 그리고…”

잊지 못한 뒷말은 마른침에 묻혀 꿀꺽 넘어갈 뿐이었다. 이번에는 젊은 남자 교수님이 정곡을 찌르는 질문을 다시 하였다.

“사회복지 학과에 오려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요양보호사인 엄마를 돕고 싶었고, 그리고 대학에서 배워야 안정된 직업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앞에서 꼬인 대답은 아뿔싸, 내 마음과 다르게 망한 대답으로 튀어 나갔다. 평소에 엄마와 나눴던 대화로 대답하면 안 되는 말이었다.

면접관 교수님들은 소리 내어 웃었다. 뻔뻔하게 다시 앉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콧속까지 빨개진 얼굴로 어쩔 줄 모르는 나에게 여자 교수님이 말씀하셨다.

“솔직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 인생의 첫 면접은 이렇게 허무맹랑하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슨 정신으로 인사를 하고 면접실을 나왔는지 모르겠다.

10분 안으로 나를 최대한 잘 살려 보여줘야 하는 면접을 위해, 인형들을 세워놓고 거울을 보며 수없이 준비했던 예상 질문들이었다. 그렇게 연습한 모범 답안은 어디서부터 꼬였을까?

내 발걸음은 대학 정문으로 향하고 있었다. 가을바람에 띄우는 낙엽들은 헝클어진 내 마음 같았다. 집에서 하염없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엄마 얼굴이 떠올랐다. 그늘도 없이 흐릿한 가을 태양은 시름 깊은 엄마 얼굴 같았다. 가슴속에서 울컥 올라오는 것은 눈물로 변했다.

내 이름은 홍도다. 태양의 그늘을 따라 도는 해바라기와 ‘홍도야 울지마라’ 노래에서 따온 이름이다. 쌍팔년도 이름이라고 친구들은 놀렸고, 계집애 이름이 그게 뭐냐고 듣는 사람마다 개명하라고 했다. 그러나 엄마의 굴곡이 담긴 내 이름은 누구도 바꿀 순 없었다.

\*

엄마는 북한의 국경도시 가까이에 있는 마을에서 태어났다. 두만강 너머로 보이는 중국 도시의 현란한 불빛은 어린 나이부터 환상을 심어주었다. 전기도 잘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매일 주린 배를 붙잡고 살아야 하는지 이해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엄마는 캄캄한 밤을 등지고 동네 친구 순이와 두만강을 통해 국경을 넘어섰다. 저 불빛이 번쩍거리는 곳에는 한 끼라도 배불리 먹고 죽으면 소원이 없겠다 싶어 죽음을 무릅쓰고 넘었다.

갓 스무 살의 행동은 엄마의 인생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줄은 몰랐다. 어둠만 있는 강 건너에서 동경하던 네온사인 불빛이 흐르는 도시는 지상 천국이었다. 쌀밥에 고깃국을 보니 엄마는 혼이 빠졌다. 원 없이 잘 먹어 지금 죽는대도 괜찮다고 할 무렵이었다.

어리숙한 엄마와 친구에게 다가온 사람들은, 사람을 사고파는 인신매매단이었다. 낯선 중국 남자들은 엄마와 친구를 아래위를 뜯어보며 중국어로 흥정하기 시작했다. 중국어를 알아듣지 못해도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었다.

밥은 잘 주지만 엄마가 갇힌 작은 방문 앞에는 무섭게 생긴 사람들이 교대로 지켰다. 도망갈 틈이 보이지 않았다, 그 방에서 엄마는 생각했다. 굶주려도 다시 내 집이 있는 북한으로 돌아가야 하나, 중국 어디에서 살든 배고픈 걱정이 없으면 좋겠고, 일해 돈은 벌겠지, 하는 순박한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라도 돈을 모으면 북한 어디 있는지 생사 모를 동생도 찾아야 한다는 다짐도 했다.

엄마와 친구는 같은 동네로 가는 조건으로 함께 팔렸다. 엄마는 해바라기 농사를 짓고 나이 많은 노총각에게로, 친구는 어린 딸이 딸린 홀아비에게로…….

엄마가 짓는 해바라기 농사는 일반 농사가 아니었다. 해바라기를 심고 가꾸어 가을이면 해바라기씨를 털어 시장에서 팔았다. 중국 시골의 해바라기밭은 시작과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넓었다.

드넓은 땅에 해바라기를 심고 가꾸는 일은 너무 힘들었다. 일이 힘들어 지치고 토하고 기운이 빠지는가 싶은 속에서, 엄마는 나를 잉태하게 되었다. 얼굴도 모르는 중국 시골 노총각에게 팔려 온 처지, 사랑 없는 임신이었다. 심한 입덧으로 기운이 없는 엄마는 해바라기를 붙잡고 가난하지만, 멀리 떠 온 고향 생각에 매일 같이 울었다.

‘홍도야 울지마라 오빠가 있다. 아 네가 나갈 길은 너는 지켜라.’

만개한 해바라기가 줄지어 선 그늘 밑에서 엄마는 ‘홍도야 울지마라’ 노래를 부르며 기운을 차렸고 작은 위안을 받았다.

엄마가 북한에서부터 불렀고 좋아하는 이 노래는 한국 노래였다. 북한 영화 ‘민족과 운명’에서 나온 한 장면으로, 처음으로 북한 대중에게 알려졌다.

북한 영화 내용은 군사독재자 박정희 좋게였던 안기부장 김형욱을 프랑스에서 암살하는 내용이었다. 박정희의 또 다른 심복인 홍영자가 김형욱을 죽이고 괴로워 술집에서 취한 채 이 노래를 구슬프게 불러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북한 사람들은 영화에서 나오는 홍영자가 북한 독재자도 죽였으면 하는 환상으로 ‘홍도야 울지마라’ 노래를 당국자들의 단속에서 불구하고 불렀다. 누리지 못하는 자유를 꿈꾸며 사랑하는 북한 사람들의 대중가요 같은 노래가 되었다. 엄마는 자유의 상징처럼 즐겼던 이 노래를 중국의 해바라기 그늘에 파묻혀 목메어 불렀다.

해바라기의 꽃말은 태양을 따라 도는 일편단심이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는 이 노래를 들었고, 세상에 나와서는 홍도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

그렇게 원했던 대학이었지만 내 입으로 망쳤다는 걸 생각하니 미칠 것 같았다. 발이 닿는 대로 정처 없이 걷고 있었다. 손에 들린 핸드폰에서는 끊임없이 진동이 울렸다. 엄마와 순이 이모가 번갈아 나에게 전화했다. 말없이 엄마 전화를 받았다.

“홍도야. 어디야?”

“…….”

“얼른 집에 와. 순이 이모도 너 기다리고 있어. 기다릴게.”

엄마는 나에게 면접을 잘 봤는지 묻지 않았고 미루어 짐작할 뿐이었다. 핸드폰은 받았지만, 거친 숨결에서 꺼내어 나오는 눈물을 눈치챈 것이었다.

“지금 어디 있어? 엄마랑 이모랑 데리러 갈까?”

“엄마가 언제부터 나를 챙겼다고, 전화하지 말고, 나 그냥 좀, 내버려둬!”

엄마를 생각하는 내 마음과는 다르게 화를 내뿜었다. 그것도 엄마 가슴에 아직도 아물지 못하는 생채기를 다시 헤집어 놓았다.

‘못된 년, 엄마 고생도 잊어버리는 나쁜 년.’

면접은 내가 망쳐놓고 엄마에게 화풀이하는 내가 너무 미워 처음으로 막말을 내뿜었다. 아무리 속이 상해도 엄마의 상처를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였다. 어찌하면 좋을지 몰라 나는 핸드폰 전원을 꺼버렸다. 이 기분으로 집에 갈 순 없었다. 그냥, 조금만 더 견다 보면 생각이 정리될 것 같았다.

한 달 전, 담임선생님은 종례를 마치며 나에게 교무실로 오라고 하셨다. 대학 입시가 가까울수록 선생님의 얼굴은 어두웠다. 평소에도 말수가 없던 나는 선생님 앞에만 서면 더 움츠러들었다. 담임선생님은 이런 나를 보며 짧지만 무거운 숨을 내쉬었다.

“홍도야. 보험으로 중국어 특기자 전형도 일단 지원하자. 검정고시 성적도 좋고, 생활기록부도 좋아서 지원 안 하면 너만 손해야. 면접형만 고집하지 말고, 응? 면접형은 대학에서 원하는 대답을 잘해야 해.”

대답 없이 발끝만 내려다보는 나에게 담임선생님은 진심으로 조언하셨다 중국에서 살다 온 나에게 외국어 특기자 전형은 유리했다. 하지만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춰야 하는 조건도 따라붙었다.

그리고 담임선생님에게도 말하지 못한 나의 사정도 있었다. 대안학교 출신으로 서울 상위권

대학을 쉽게 가는 방법은 탈북민 자녀 특례 면접형이었다. 수능 최저를 맞춰야 하는 특기자보다, 면접만 잘 보는 된다는 생각으로 선택했다.

쉬운 길만 고집하는 듯한 내 선택에 담임선생님은 아쉬운 마음이 든 모양이었다. 특기자 전형도 준비하자는 조언은 나에게 점점 부담으로 다가왔다. 얼른 교무실에서 나오고 싶어졌다. 발끝만 내려다보던 나는 담임선생님에게 이도 저도 아닌 고개를 숙이고 입을 꼭 다문 채 나왔다.

복도는 시끄러웠다.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들은 대부분 대학 입시에는 관심이 없었다. 교실로 들어서니 반 친구들은 무언가를 둘러보며 한바탕 웃고 떠들고 있었다.

한 친구가 주변에 모여있는 친구들에게 내가 왔다고 눈치를 줬다.

“아, 왔다, 왔다.”

“애들아, 쏠, 대학생 흥도가 왔다!”

반에서 인기가 많은 서영이가 친구들에게 비아냥대며 말했다. 서영이와 어울리는 친구들은 서영이 말이라면 무조건 맞장구를 쳐줬다. 서영이와 주변 친구들은 나를 보며 실실 웃었다.

항상 그래왔듯이 나는 이 상황을 익숙하게 무시하였다. 내 자리에 조용히 앉아 책상 안에 넣어둔 면접 예상 질문지를 꺼내려고 보니 손에 잡히지 않았다. 교무실로 갈 때 분명 책상 안에 넣었다. 혹시, 책가방에 있나 싶어 살펴봤지만 없었다.

서영이는 친구들과 내 앞으로 의기양양하게 다가섰다. 당황한 얼굴인 나에게 서영이가 내가 찾던 면접 질문 종이를 흔들며 말했다.

“이거 찾는 거 맞지?”

서영이 행동에 화가 났지만 대꾸하기 싫었다. 괜히 꼬투리 잡혀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았다. 서영이 손에 들린 질문지를 받으려고 손을 내밀었지만 곱게 줄리 없었다.

질문지에 적혀있는 모의 질문을 한번 보고, 내 얼굴을 쳐다보며 서영이는 비꼼이 섞인 말투로 늘어놓기 시작했다.

“뭐야, 설마 아직도 외우지 못했어? 머리가 나쁘면 노력이라도 해야지. 내가 면접관이라고 생각하고 똑바로 대답해!”

“.....”

“자, 한국과 중국이 축구 경기하면 넌, 어디 응원해?”

거만한 표정으로 질문을 던진 서영이는 나를 째려봤다. 답변할 가치도 없는 유치함이었다.

“그냥 줘.”

“왜 그냥 줘야 한다고 생각해? 이 나쁜 년아. 너 같은 것들이 한국대학을 무임승차 하는 꼴은 내가 그냥은 못 봐주지. 안 그래?”

서영이가 하는 말에 나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러나 무조건 참아야 했다. 아니, 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너랑 싸우기 싫어. 줘.”

처음으로 학교에서 짜증 섞인 목소리로 서영이 말에 대꾸했다. 반에서 입 닫고 지내던 내가 작은 화를 내니 서영이는 어이없다는 듯이 나에게 더 큰 목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이게 쳐 돌았나? 어디다 개개? 잘 봐. 너 입시는 이렇게 될 거니까.”

그러곤 자기 손에 들린 질문지를 내 눈앞에서 짹 찢어버렸다. 눈앞에서 반으로 찢겨 떨어지는 질문지를 반사적으로 잡았다. 손에 잡히는 건 반쪽이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데...”

눈물에 젖은 내 목소리는 떨렸고, 몸에서는 당장이라도 쓰러질 듯 기운이 빠졌다.

“너한테는 짱개 피가 흐르잖아. 나는 너 같은 애들이 제일 싫어. 한국에서 죽어라 공부하는 애들도 가기 힘든 대학을 너는 쉽게 가려 하잖아. 양심 없는 년아, 중국으로 꺼져!”

서영이가 하는 모욕을 그대로 들으면서 나는 더 이상 맞받아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서영이가 한 말은 사실이었으니까.

‘무임승차 아니야! 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 그리고 나도 절반은 한국인 피가 섞였다고!’

목청 높여 당당하게 서영이에게 나도 말해야 했다. 똑 부러진 말은 입안에서 우물땀고, 반쪽짜리 질문지와 함께 눈물만 떨구며 교실에서 뛰쳐나왔다.

정신없이 집으로 돌아왔지만 아무도 없는 텅 빈 집이었다. 작은 침대에 몸을 던지고 꺼이꺼이 소리 내어 울었다. 한참을 울었더니 조금은 진정이 되었다. 밤늦게까지 요양보호사 일을 하는 엄마는 오늘 밤도 퇴근이 늦었다.

엄마가 미리 해놓은 멀치 반찬을 입에 넣고 잘근잘근 씹으며 생각했다. 엄마 찾아 한국으로 오지 않았다면, 나는 중국에서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

중국에 혼자 있는 아빠는 잘 지내는지, 가끔 아빠도 그리웠다. 그러나 엄마 앞에서 나는 아빠에 대해 한마디도 꺼내지도 않았다. 엄마의 상처는 아빠였고, 아빠의 상처는 내가 아닐까 싶었다. 엄마 없이 아빠와 살았던 시간이 떠올랐다.

\*

허름한 창문가에 장식용으로만 있던 빨간 전화기가 갑자기 울렸다.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던 나였다. 우리 집에 전화가 온다면 이웃집들에서 일을 도와 달라는 부탁뿐이었다. 나는 농사일에 지친 아빠가 안쓰러워 전화가 울려도 받지 않았다.

전화벨은 어지럽게 계속 울렸다.

“아빠, 전화 받아요.”

앞마당에서 해바라기씨를 정리하고 있는 아빠에게 소리쳤다. 일하던 손을 털며 아빠가

집으로 들어왔다. 울리는 전화를 받자마자 아빠는 신경질적으로 바로 끊어버렸다.

다시, 앞마당으로 나가며 나를 힐끗 보는 아빠가 이상했다. 무슨 일인지 궁금했다. 아빠 모르게 살그머니 전화기를 들어 재다이얼을 눌렀다. 잘못된 번호라는 안내가 들렸다. 전화기 창에 남아있는 번호를 수첩에 적을 때였다. 서늘한 기운에 돌아보니, 뒤에서 나를 노려보는 아빠가 있었다. 나에게 불같이 화를 내며 아빠는 내 손에 들린 수첩을 낚아챘다.

아빠의 한숨도 이상했지만, 곰곰이 생각하니 이상한 전화는 최근에 자주 왔었다. 순간, 흐릿해진 여인의 얼굴이 떠올랐다. 죽도록 보고 싶었지만, 다시는 못 만날 것 같은 여인의 얼굴은 엄마였다. 다섯 살 난 나에게 말 한마디 없이 훌쩍 사라진 엄마를 다시 떠올려 보니 화가 났다.

모질게 버리고 떠났으면 그만이지, 왜 이제야? 엄마라는 존재가 너무 미웠다. 어떻게 생겼는지 겨우 잊어가던 참이었다. 그런데도, 나를 찾는 엄마 전화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만으로 화난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었다.

중국은 여성이 아이를 낳으면 엄마 호적에 등록되는 제도였다. 엄마는 북한 국경 이탈자로, 북한, 중국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엄마에게 태어난 나도 같이 무국적자였다. 이런 나에게 엄마는 중국어보다 북한 말을 먼저 배우게 했다.

아빠는 엄마에게 종종 매를 들었다. 이유는 애를 데리고 도망갈 궁리만 한다고 온갖 트집을 걸었다. 아빠에게 매를 맞으면 엄마는 나를 데리고 순이 이모와 하염없이 울었다.

어렸던 내 눈에도 엄마는 언젠가 멀리 도망갈 것처럼 보였다. 생각은 현실이 되었다. 엄마는 내가 잠든 틈에, 엄마는 순이 이모와 함께 새벽안개 속으로 조용히 증발했다.

엄마를 부르며 찾고 또 찾아다녔다. 눈물을 많이 흘리면 목에서 비릿한 맛이 난다는 걸 그때 알았다. 그렇게 나를 버리고 떠난 엄마에 대한 미움을 나는 해바라기 그늘에 묻었다.

가을은 농사꾼에게 가장 바쁜 계절이었다. 여름철 불같은 태양만 따르며 성장하는 해바라기는 가을에는 무거운 씨를 품었다. 아빠는 해바라기의 굵은 씨만 털어내어 도매업장사꾼들에게 넘겼다. 작은 씨알을 시장에서 파는 건 내 몫이었다.

그날도 시장에서 해바라기씨를 팔고 있었다.

“혹시, 너 이름이 흥도니?”

낮선 아주머니가 시장바닥에 앉아 있는 나를 보고 이름을 물었다. 대답 없는 나에게 아주머니는 안심해도 된다고 전화가 걸려있는 핸드폰을 들이밀었다.

영상통화가 걸려있는 핸드폰 화면에서는 누군가 울고 있는 실루엣이 보였다. 얼마나 잊고 살았던가? 기억도 가물거리는 엄마 얼굴이었다. 분명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엄마 얼굴이었지만 쉽게 떠올랐다. 엄마는 연신 내 이름만 불렀다.

“흥도야. 흥도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는 흥도를 꿈에도 잊은 적 없어…….”

엄마가 아무리 울고불고 미안하다 해도 나는 아무 말도 나가지 않았다. 감정 없는 머릿속은 멍해졌다. 핸드폰을 땅에 던지고 정신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도 안 먹고 이불을 뒤집어쓰고 울고 있었다. 아빠는 하얀 쌀죽을 담은 그릇을 이불속으로 들이밀었다. 주름투성이인 아빠의 손을 보니 가슴이 무너지며 꺼이꺼이 통곡했다. 너무 늙어버린 아빠에 대한 연민인지, 엄마에 대한 그리운 미움인지 알 수 없었다.

며칠 후, 나는 다시 시장으로 갔다. 해바라기씨를 파는 와중에도 나를 찾아왔던 그 아주머니가 행여나 기다려졌다. 해가 저도 아주머니는 보이지 않았다. 나도 엄마에게 보고 싶었다고 말할걸, 후회가 들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시골길, 덜컹거리는 자전거를 타며 엄마 목소리를 털어내려고 애썼다. 내가 몸부림칠수록 엄마 얼굴과 목소리는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다.

집 앞, 마당에서는 맛있는 음식 냄새가 풍겼다. 가난한 우리 집에서 좀처럼 낼 수 없는 냄새였다. 집안에 들어서니 밥상 한가득 음식들로 차려져 있었다. 시장에서 기린 목이 되어 기다렸던 아주머니가 나보다 먼저 우리 집에 계셨다.

집으로 들어서는 나를 보고 아빠는 밥상에 놓여 있던 두툽한 봉투를 급히 집어 품에 넣었다. 돈봉투를 품은 아빠는 담배를 물고 말없이 마당으로 나갔다.

아주머니는 나에게 아빠랑 이야기를 끝냈으니 떠날 준비를 간단하게 하라고 했다. 나는 무슨 영문인지, 어디로 가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다. 방에서 내 물건을 주섬주섬 챙겼다. 작은 가방 하나에도 다 차지 않는 내 물건, 놓친 것 없이 다 챙겼지만, 마음은 허전했다.

다시 보니, 홀로 남겨질 아빠가 마음에 걸렸다. 모른 척, 꼭 참아야 했다. 열다섯에 국적도 없이 시골에서 농사짓는 내 신분 탈출이 먼저였다. 작은 가방을 들고 집 문을 나섰다.

몇 걸음만 더 가면 마당 대문도 나서게 된다. 담배만 빼꼼거리던 아빠는 말없이 어서 가라고 나에게 손을 내저을 뿐이었다. 엄마 찾아 이 집을 떠난다는 건, 아빠와의 기약 없는 생이별이었다.

대문을 열다 말고 돌아와 아빠를 처음으로 부둥켜안고 진심으로 말했다.

“아빠, 나 없어도 건강해야 해!”

주름투성이인 아빠의 늙은 눈시울은 붉어져 있었고, 나를 부둥켜안은 손은 기운이 없었다.

\*

뒷자리에 앉아 아빠와의 시절을 추억하던 나를 덜컹대며 멈춘 버스가 깨웠다. 버스 기사님은 큰 목소리로 나에게 알려주셨다.

“저기, 학생, 여기는 버스 종점이라서 내려야 해요! 다시 돌아가려면 길 건너에서 타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목적 없이 탄 버스였다. 정신 차리고 다시 집으로 가는 방향의 버스를 탔다.

가방에 넣어두었던 핸드폰 전원을 다시 켰다. 엄마와 순이 이모에게서 온 부재 전화와 문자가 보였다. 미안하다는 말과 어디 있는지 알려주면 당장 데리러 온다는 말이었다. 엄마의 문자를 확인하고 다시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다. 어린 나를 버리고 말도 없이 떠났던 것처럼 당해보라는 식이었다.

투두둑, 버스 창가를 때리는 빗소리가 들렸다. 잔잔하게 내리는 늦가을 비였다. 마지막 가을비를 끝으로 겨울이 오면 내 마음도 다시 퐁퐁 얼 것 같았다. 우산도 없이 비가 오는 거리를 걷고 싶어 버스에서 내렸다.

서울 도시의 밤거리에 다닥다닥 비춰주는 화려한 네온사인과의 달리, 한국에서도 여전히 고생하는 엄마에게 미안했다. 지긋지긋한 중국 촌 동네를 떠나, 엄마가 있는 한국으로 오면 꽃길만 있는 줄 알았다. 엄마 곁으로 와보니 이런 생각은 착각이었다. 엄마에게는 빛이 많았다.

그런데도 열다섯 살 먹도록 학교 문턱을 넘어보지 못한 나를 학원으로 데리고 갔다. 학교 졸업증이 없는 나를 받아줄 정규적인 학교가 없기에 학원이 먼저였다. 나는 학원 다니며 탈북민 자녀들을 받아주는 대안학교로 다니게 되었다.

비인가 대안학교에서는 정규적인 수업보다는 한국 사회로 발을 붙이는 교육이 많았다. 몇 년 동안 나는 학원에 다니며 죽어라 공부에 매진했다. 덕분에 검정고시로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만점을 가까운 점수를 받아 졸업증을 받았다.

이제 목표는 대학이었다. 다른 곳은 몰라도, 대학만큼은 반드시 꼭 정상적으로 다니고 싶었다. 탈북민 자녀들이 다니는 대안 고등학교에도 입시는 있었다. 대부분 대학보다 사회 진출이 우선이었다. 탈북민 자녀로 대학을 쉽게 갈 순 있지만, 학업을 따라가기 힘들어 중도 포기가 많았다. 말없이 공부만 하는 내가 그들에게는 미움의 대상이었다.

어느 날, 우연히 화장실 안에서 친구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내가 있는 줄도 모르고 뒷담화를 하는 거였다.

“홍도 개 진짜 별로다. 누군 중국어를 할 줄 몰라서 대회 참가 안 하나? 대학 같은 소리 하네.”  
“그러니까 짱개라고 하지, 엄마를 그렇게 만든 중국이 좋으면 중국에서 왜 쳐와? 여기까지 와서 나대는 꼬라지 진짜 재수 없어.”

그들이 하는 뒷담화를 들으며 눈물보다는 나의 정체성은 뭘까? 싶었다. 중국인 아빠에게 팔려 온 북한 출신 엄마가 낳은 나는 어디에 속하는 걸까? 화장실 문을 열고 나갈 수 없었다. 불확실한 정체성으로 흔들리는 나에게 고민만 던지고 그들은 떠났다.

며칠 후, 학교에서는 대학 입시를 위해 중국어 말하기 대회가 열렸다. 중국태생인 나를 이길

친구는 없었다. 중국어 대회에서 상을 타자 친구들은 더욱 나를 외면했다. 이런 학교생활은 싫었다. 그러나 내가 어디에 속해 있다는 소속감만은 느낄 수 있었다. 참고 또 참을 수밖에 없었다.

엄마도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요양보호사를 하는 이유가 있었다. 북한에 두고 온 가족과 사람들이 그리워서라고 했다. 그런 엄마를 보며 나도 사회복지사가 되어 엄마를 도우리라 생각했다. 대학 입시 준비도 혼자서 열심히 준비했다. 탈북민 자녀 특별전형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은 생각보다 많았다. 다른 친구들보다도 입시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적었고, 쉽게 합격할 수 있는 길이 보장되었다. 그런데 오늘 대학이 차려놓은 다 된 면접을 내 입으로 엮어버린 꼴이 되었다.

걷다 보니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멈춰졌다. 생화 전문 꽃가게였다. 엄마와 함께 한 번씩 오던 곳이었다. 이곳에만 작은 해바라기꽃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중국에서 해바라기 농사를 지었던 엄마와 나는, 해바라기꽃이 보이면 자연히 발걸음이 멈춰진다.

환한 불빛 아래 가게에는 오늘도 아름다운 꽃들이 많이 보였다. 그 속에서 관상용 해바라기 세 송이가 유난히 눈에 띄었다. 한국에서 다시 만난 엄마와 나, 순이 이모처럼 보였다.

‘홍도야. 울지마라, 오빠가 있다. 아, 네가 나갈 길은 너는 지켜라.’

갈린 목소리로 혼자 노래 가사를 중얼거렸다. 엄마가 떠난 후, 처음으로 불렀다.

“홍도야. 네 뒤에는 엄마와 이모가 버티고 있다!”

돌아보니 우산을 든 채 울고 있는 엄마가 보였다. 엄마 옆에는 순이 이모도 있었다. 나를 찾으려고 얼마나 슬펐을까 싶었다. 비에 젖은 머리를 엄마와 순이 이모가 벌린 품으로 들이미는 순간, 따뜻한 온기가 돌아왔다. 그리고 한동안 말없이 서로 부둥켜안고 있었다.

면접을 망쳤지만 괜찮다. 당분간 이대로도 충분하다고 느꼈다. 태양의 그늘에서 태양을 따라 도는 홍도, 그리고 내 곁을 지키는 엄마와 순이 이모만 있다면 어떤 일도 헤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우리는 나란히 집을 향해 걸어갔다.

내일도 태양은 다시 뜰 거라는 믿음을 품고서.

# 혈연 외 가족

## 고등부 우수상, 김니영, 삼성여자고등학교

피로 이어지지 않은 가족도 가족이지만, 그런 설탕 발린 말은 우리 집에는 영 들지 않는 것 같다.

예를 들면, 식사 시간에 형 쪽에 몰려있는 고기반찬들이나, 5년 동안 바꾸지 않은 내 신발과는 달리 5개월 전에 바꾸었는데 어제 또다시 바꾼 형의 신발, (나는 근처 시장에서 산 신발이고 형은 브랜드 매장에 가서 산 신발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의 차이점이라면 차이점일 것이다.) 그리고 먼지가 쌓인 내 책상과는 달리 주기적으로 상장이나 트로피 따위가 쌓여가는 형의 책상 등... 그런 것들을 보면 알 수 있다.

내가 이 집에 들어온 것은 9년 전이다. 내가 8살이 되었을 무렵, 나는 내 엄마에게서 떠나와 처음 보는 아버지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하기가야 우리 엄마는 홀로 베트남에서 살고 있는 가난한 여자였으니, 나를 감당하기 어려워 한국에 살고 있는 아버지에게 연락을 취한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적어도 나에게는 말이다.

그날 내가 처음 보는 넓은 아파트에 들어서 아버지의 옆에 멀뚱히 서있자, 호기심으로 가득 찬 눈 두 쌍이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던 것을 기억한다. 처음 입을 연 것은 키가 큰 여자였다. (그 당시에는 한국어를 몰랐기에 대충 내 기억에 남은 대화를 번역해 마음대로 덧붙이자면, 대화 내용은 이러했다.)

"애는 누구야?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아마 아버지의 회사 동료 이름 같았다.) 씨 아들?"

"아니." 아버지의 손이 허리춤에서 살짝 움찔거렸다.

"그럼 윤재 반 친구인가? 윤재야, 아는 애니?"

"아니, 모르는 애인데." 윤재라고 불린 아이, 즉 내 형 되는 사람은 고개를 가웃이며 내 쪽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아버지는 고개를 내려 내 쪽을 쳐다보다가, 한숨을 내쉬고 크고 두꺼운 손으로 내 등을 살짝 툭툭 치며 말했다.

"애는... 윤재 동생이야."

(현재 같이 거주 중인) 어머니의 눈썹이 살짝 꿈틀거렸다. 아버지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았다.

"동생인 건 덩치 보니까 알겠고... 누구 애인데? (기억나지 않는다.) 씨? 아니면..."

"내 애야."

급히 튀어나온 듯한 짧은 말 한마디에 싸늘한 정적이 넓은 집을 가득 채웠다.

그 당시 한국어를 몰라 대화를 이해할 수 없던 8살 꼬맹이인 나도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은 알 수 있었다. 그렇기에 나는 그저 고개를 내리깔고 어머니와 형의 발을 쳐다보았다.

곧 어머니가 크게 고함을 지르며 아버지에게로 달려들었다. 나는 여전히 고개를 내리깔고 가만히 서있었다. 몇 번의 큰소리가 나고, 나지막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올 무렵, 발 한 쌍이 내게로 다가와 내 손을 끌고 가까이 자리한 방으로 끌고 들어갔다.

방문이 닫히고 고요한 적막이 방을 채우자, 나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종이에 크레파스로 사람 세 명이 그려진 그림들이 방 벽 곳곳에 붙어있고, 천장에는 연한 초록색 별들이 붙어있고, 낡거나 부서지지 않은 책상이 놓여있는, 꽤나 낡은 공간이었다. 한국에 들어와서 모든 것이 낯설긴 하였으나 그중에서도 이것이 제일 낯설었다.

나는 방을 구경하고 있던 눈을 내 앞에 서있는 사람에게로 돌렸다. 나보다는 하얀 피부에, 굵슬거리는 갈색 머리, 동그랗게 뜯 눈으로 나를 신기한 것 마냥 쳐다보고 있는 덩치 큰 남자애. 9년 전이나 9년 후나, 계속 내 형의 자리를 맡을 사람이었다.

형은 손을 들어 휘적거리며 내게 무언가를 전하려고 애썼다. 아마 내가 집에 들어서부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이나, 딱 봐도 이국적인 외모를 보았을 때 내가 한국말을 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듯했다. 뭐 어쨌든 실제로도 그랬고 말이다.

형은 계속해서 방 밖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검지를 제 입에 대는 것을 반복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방 밖에서 싸우고 있으니 조용히 해야 한다는 뜻인 것 같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차피 시끄럽게 할 수도 없었다.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형은 살짝 미소 지었다.

그날부로 나는 이 집에서 살게 되었다. 내 존재를 무시하는 어머니, 출장 간 나라에서 나를 만들고 도망쳤다가 돌아온 아버지, (이는 15살 때 어머니 아버지가 싸우는 내용을 엿들어 알아낸 내용이다.) 그나마 나를 신경 쓰는 형까지. 내 가족은 엄마 한 명에서 갑작스레 세 명으로 늘게 되었다. 상당한 변화이지만 나는 그럭저럭 순응하고 있다. 어차피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잖은가.

어찌하였든, 이제 옛날이야기는 그만하자. 내가 잠시 과거 회상에 젖어 밥상머리 앞에서 젓가락질을 깨작깨작하고 있으니 누군가 심히 기분이 상하신 것 같으니 말이다.

"박윤하, 먹을 거면 먹고 안 먹을 거면 말아. 밥상머리 앞에서 그렇게 죽상으로 반찬만 뒤적거리면 만든 사람이 뭐가 되니?"

어머니가 얼굴을 찌푸리며 수저를 내려놓았다. 나는 반찬을 뒤적거리던 젓가락을 멈추고 눈을 내리깔았다. 마음 같아서는 어머니 말대로 먹지 않고 바로 방으로 들어가고 싶었으나, 만일 일어난다면 "박윤하, 그런다고 진짜 일어나니? 다시 앉아." 소리를 들을 게 뻔했으므로 그런 생각은 접어두었다. 나는 잠시 어떻게 대꾸해야 하나 고민했다. 바닥으로 향한 걸눈 위쪽으로 어머니가 주먹을 꽉 쥐는 것이 보였다. 어머니가 무어라 말하려 숨을 잠시 깊게 들이쉬자, 형이 재빨리 내 밥 위에 고기 하나를 놓았다.

"엄마, 너무 그러지 마요. 곧 시험 기간인 거 아시잖아요. 안 그래도 머리 아플 텐데... 자, 윤하야 고기 좀 먹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형이 밥 위에 놓아준 고기를 먹었다. 어머니는 잠시 아무 말도 않다가, 한숨을 쉬고 다시 수저를 들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수저를 내려놓았을 때부터 미동도 않고 가만히 있다가, 이제야 움직여 반찬을 먹기 시작했다.

안 그래도 조용한 식사시간에 무거운 공기까지 내려앉아 숨이 턱턱 막혀왔다. 억지로 밥을 속으로 옥여넣고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형은 먼저 일어나는 나를 잠깐 빤히 바라보다가, 아직 반절은 남은 자신의 밥과 나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어머니가 "윤재야." 하고 불려서야 다시 먹기 시작했다.

나는 내 방 침대에 털썩 드러누웠다. 텅 빈 벽, 텅 빈 책상, 텅 빈 바닥, 흑자가 보면 깨끗하다고 좋아할지도 모르겠으나, 나는 더럽기 그지없다고 생각하는 방. 내 방은 9년부터 지금까지 달라진 것 하나 없어 묵힌 나쁜 기억들이 썩어들어 악취가 난다. 오히려 과자 봉지나 양말이 바닥에 뒹구는 형의 방이 더 깨끗할 것이다. 적어도 무언가 바뀐다면 환기는 하고 있다는 뜻일 테니까. 분명 형의 방에서 과자 냄새는 나도 악취는 안 날 것이다. 어머니도 그렇게 구니까. 내 방은 문도 쳐다보지 않지만 형 방은 문이 닳도록 찾아가니 알 수 있다.

그와 비슷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 푹 푹, 하니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들어와."

이 집에서 내 방에 들어올 때 노크를 해줄 만큼 친절한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었으므로 딱히 누구냐고 되묻지 않고 바로 들여보냈다. 문이 열리자 보인 것은 내 예상대로 형이었다.

"뭐 하고 있었냐?"

"잠자고 있었는데."

"구라 까기는."

형은 피식 웃으며 내 머리맡에 앉았다. 그러고는 제 핸드폰을 켜서 여러 짧은 영상들을 스크롤 하며 보여주기 시작했다.

"야, 너 이거 봤냐?"

"아니."

형은 이게 뭐가 그리 재밌다는 것인지 고양이 영상이나 사람들이 춤추는 영상들을 내게 계속 보여주었다. 나는 대충 오, 같은 감탄사를 내뱉어 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 형은 내가 이런 걸 보는 것에는 영 관심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을 터다. 예전부터 눈치는 좋은 놈이었으니까. 다만 그럼에도 이 영상들을 내게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일까, 예상이 가긴 한다. 아마 위로를 하려는 것이다. 형은 내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혼이 나면 잠시 뒤 내 방으로 슬쩍 들어와 나한테 실없는 농담을 던지고는 했다. 직접적으로 괜찮아? 많이 혼났니? 속상했겠다 따위의 말을 건네는 것은 썩스럽다고 생각한 형만의 위로 방식인

것이다. 실제로도, 나는 형의 이 행위로 상당히 위로를 받았다. 그간 전하지는 못했지만, 가끔 그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어찌나 호흡이 가벼워지는지.

내가 뭐가 그리 걱정되어 이리 위로를 하고 싶어 할까, 코끝이 살짝 저릿해진 느낌에 피식 웃으니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냥 미간을 찌푸린 것처럼 보이겠지만.) 형은 활짝 웃었다.

"어? 이거 재밌어? 보내줄까?"

형은 재빨리 내게 보여주고 있던 고양이 영상을 길게 눌러 공유창을 띄웠다. 그것 때문에 웃은 것은 아니지만, 굳이 말할 필요는 없겠다 싶어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곧 띠링 소리와 함께 형에게서 고양이 영상이 공유되었다는 알림이 왔다.

나는 알림을 슬쩍 보고 핸드폰을 껐다.

"이거 보여주려고 온 거야?"

형은 잠시 으음, 하는 소리를 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나저나 윤하야. 학교에서 그림 공모전 포스터 붙여둔 거 봤어? 너희 학년 층 복도에 붙어있던데, 안 나가?"

"거길 내가 왜?"

"그냥, 너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잖아. 이왕 하면 좋지 않나 싶어서."

"딱히... 관심 없는데."

나는 여전히 내 침대 머리맡에 앉아있는 형에게서 고개를 돌려 천장을 바라보았다. 사실 관심 없다는 건 거짓말이다. 내 반으로 가기 위해 복도를 지나칠 때마다 그 포스터와 눈이 마주칠 때면, 한참을 그 앞에 서서 공모 자격, 제출일, 주제, 문의 이메일 등 그런 자잘한 것들을 읽고 있었다. 이제는 다 외워서 누군가 포스터의 내용을 전부 뱉어보라 한다면 자신 있게 대답할 정도로 읽고 또 읽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주제를 제외한 포스터의 내용 전부겠지만 말이다.

"그 공모전 주제가 뭐였더라... 가족? 할만하지 않아?"

형의 말에 나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전혀 할만하지 않았다.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는 지도 모르는 엄마는 이미 옛적에 얼굴을 잊어버린 지 오래였다.

"그릴만한 게 없는데."

"그릴만한 게 왜 없어?"

형이 씩 웃으며 당당하게 자신을 가리켰다. 나는 눈썹 한 쪽을 들어 올리며 형을 빤히 쳐다보았다. 형은 잠시간의 어색한 침묵 후에 헛기침을 하며 자신을 가리키고 있던 손을 내렸다. 이제는 내가 아닌 벽을 쳐다보는 형의 옆얼굴로, 형의 콧바위가 붉게 물든 것이 보였다. 너무나도 당연히 내가 자신을 그릴 것이라 생각한 것이 뒤늦게서야 부끄러웠나, 내 가족이라는 주제에 당연히 자신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한 형이 그다지 기분 나쁘지는 않았다. 오히려 미안했다. 누군가 우리에게 가족이나 묻는다면 형은 곧바로 그렇다고 대답할 테지만 나는 그러지 못할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기 때문이다.

"해보긴 할게."

내 통명스러운 말에 형의 눈이 반짝였다. 솔직히 말하자면 진심은 아니다. 이런 공모전이야 하지 못할 짓이라고 이미 마음속으로 정해둔 일이었으니, 미안한 마음에 일단 던진 아무 말에 가까울 것이다.

"그럼 모델이 필요하겠네!" 형이 제 무릎을 탁 치며 소리쳤다. "뭐, 원하는 포즈 있어? 1시간 정도는 가만히 있어줄 수 있는데."

"뭐... 지금 바로 그리라고?"

"뭐? 아, 맞아, 그래.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겠지! 맛다, 참." 형은 머쓱한 듯 웃음을 터트리고는 다시 내 쪽을 돌아보며 말했다. "그럼, 뭔가 생각나면 말해줘. 새벽 중에 깨워도 포즈 취해줄 테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형은 미소를 지으며 내 머리를 헝클어트리고는 방에서 나갔다. 다시 혼자만 남은 방에서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가족이라, 애초에 가족이 뭘까, 피로 이어진 사람들? 그렇게 따지면 형은 그럴 수 없는데.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 오 좋아, 이제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군.

분명 기가 사간에 배운 것도 같은데, 어째 영 이해하기 쉽지 않다. 피로 이어져있고, 믿고 의지할 수 있고, 서로를 이해해 주는... 무언가 추상적인 것. 애초에 이 공모전에서 원하는 게 가족의 정의는 맞는 걸까.

결국 그 무엇도 모르겠어서 다음 날 형과 함께 학교로 걸어갈 때 형한테 물어보았다.

"어... 가족이 뭐냐고? 갑자기? 공모전 준비 때문에 그래?"

"응."

"글쎄, 가족이라는 건... 혈연? 아니면 뭐 믿을 수 있는 사람이거나... 집이 되어주는 사람 같은 거 아닐까. 거리낌 없이 편히 지낼 수 있는 사람 말이야."

"너무 추상적인데?"

"익... 어쩔 수 없잖아. 너무 당연하게 갖고 있던 걸 그렇게 물어보면 좀 당황스럽거든... 뭐, 그래도 그냥 가족이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가족인 거겠지. 가끔은 피가 섞여있는데도 가족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사람도 있으니까."

가족이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가족이다라, 나는 내 원래 엄마를 떠올려보았다. 솔직히 이제는 얼굴이나 목소리조차 기억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 가족이라 느껴진다고 묻는다면, 솔직히 잘 모르겠다. 가족이라고 느껴진다고보다는 가족이라 기억하고 있다는 것뿐이다. 그렇다면 어머니나 아버지는... 어, 뭐, 가족 같지는 않으니 패스.

나는 옆에서 여전히 가족의 정의에 대해서 고민하는 듯 미간을 찌푸린 형을 올려다보았다. 형은 어떨까, 가족이라고 느껴질까? 형도 잘은 모르겠다. 가족이라 부르기에, 가족이 아니라 하기에, 드는 생각은 미안함뿐이라 선불리 생각하기가 두렵다. 곧 내 시선을 느낀 형이 내

쪽을 돌아보았을 때 나는 그저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 공모전 그림 제출 일자가 일주일 안팎이 남았을 때서도 나는 연필 한 번 잡지 않았다. 그럴 수 있는 것이 없었다. 미술실에서 빌려온 종지와 색연필은 책상 구석에서 먼지를 맞고 있었다. 역시 못할 짓이었다. 형에게는 못하겠다고 말해야겠다.

방에서 나가 형의 문 앞에 섰다. 몇 번 두들기고 대답을 기다리니, 아무 소리도 돌아오지 않았다.

"자냐?"

이 자식이 잘 시간까지는 많이 남았는데 이상하다 싶어 방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방의 불이 꺼져있다. 열린 문 사이로 거실 빛이 들어와 침대를 비추자, 그 위에는 아무도 없다. 또 축구하러 나간 건가? 자주 있는 일이니 딱히 놀랄 일은 아니다.

나는 바닥에 널브러진 옷가지와 잡다한 물건들을 밟지 않게 조심하며 형의 방으로 들어갔다. 벽에는 형이 좋아하는 축구 선수의 포스터와 여러 상장들이, 책상에는 트로피나 축구화 두 켤레가 놓여있었다. 책상은 그나마 깨끗한 편이었는데, 형이 제일 아끼는 트로피나 상장 같은 것들을 (형 성격 치고는) 꽤나 깔끔히 정리해두었다. 나는 책상으로 가까이 다가갔다. 두 개의 트로피와 세 개의 상장 가운데에, 다른 색 빛으로 반짝이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도 소중하게 손수건 위에도 둔... 세잎클로버 키링이었다. 내가 9살 때 학교에서 만든 영성한 세잎클로버 키링. 이것을 다 만들고 나서 형에게로 가서 서툰 한국어로 '세잎클로버' 라고 말하며 형에게 이것을 쥐여주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난다. 나는 참 오랜만이라고 생각하며 손을 뻗었다.

"박윤하."

고개를 돌리니 어머니가 방 문 앞에 비스듬히 기대어 서서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나는 키링에서 손을 거두지 않고 엄마의 시선을 마주 보았다.

"네."

"뭐 하고 있니?"

"그냥 형 찾으러 왔는데... 없길래요."

"방에 사람이 없으면 없는가 보다, 하고 나와야지 왜 기웃거리고 있어?"

나는 아무 말 없이 키링에서 손을 거두고 방을 나왔다. 어머니는 항상 내가 형의 방에 들어가는 것을 못마땅해했다. 내가 형의 방에 들어갈 때면 어렸을 적 형이 진흙이 가득 묻은 장화를 그대로 신고 집 안으로 들어왔을 때와 똑같은 표정으로 나를 응시하고는 했으니 눈치채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어머니는 아무래도 내가 이 가족의 평화를 뺏어간 것처럼 형의 물건이라도 뺏어갈까 겁이 나나보다. 어쩌면, 형의 물건만이 아니라 더 넓은 의미 일지도. 형이 오랜 기간 동안 같은 신발만 신는 내가 안쓰러워 제 신발을 준 이후로 더 얼굴을 찌푸리기 시작했으니까.

나는 방으로 들어가 책상 앞에 앉았다. 구석에는 미술실에서 빌려온 종지와 색연필이 놓여있었다. 내가 공모전에 나가고 싶다면 찾아갔을 때 쓸데없이 환해졌던 미술 선생님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나는 종이를 책상에 바로 놓고 연필을 쥐었다. 다만 막상 그릴 수 있는 것은 없어 곧바로 놓아버렸다.

띠링, 하고 알림이 온 핸드폰이 잠시 반짝 빛을 냈다. 알림을 열어보니 형이 내게 사진 한 장과 메시지를 보낸 것을 볼 수 있었다. 어렸을 적에 자주 가서 놀았던 공원이었다. 중학생이 되었을 즈음부터 학업이나 여러 문제 등으로 꽤나 바빠졌기에 간지 꽤나 오래된 공원. 사진 밑으로는 공원 앞쪽에 맛집이 생겼으며 언제 한 번 같이 가자는 형의 메시지가 있었다.

나는 연필을 쥐고 형이 보낸 공원을 스케치했다. 딱히 이유는 없었다. 마침 배경으로 그릴 것이 없었는데 잘 됐다 싶어 그린 걸까, 물론 하찮은 이유로 행한 행동답게 스케치에는 금방 질려버렸다. 나는 거의 완성되어가는 스케치를 두고 연필을 내려놓았다. 어차피 선을 따지도 못할 그림의 스케치를 이리 열심히 그려서 뭐 할까라는 생각이 들자마자 손이 무거워졌다. 종지와 연필은 다시 책상 구석에 밀어 넣었다.

내심 다시는 그 그림을 볼 일이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건만, 그것이 무색하게도 바로 다음날, 그림은 갑자기 내 방으로 들이닥친 형에 의해 끄집어내졌다. 어머니한테 빌고 기어서 용돈을 미리 끌어왔으니 저번에 말했던 맛집에 가자며 우다다다 말을 쏟아내는 형의 눈에 그 종이가 걸려버린 것이었다.

"야, 이 그림 뭐냐? 전에 말했던 공모전 준비하는 거야? 나한테 미리 말해주지! 모델도 없이 혼자서 준비하기 있어?"

"뭐, 음... 어."

분명 어제만 해도 이런 공모전 같은 건 못하겠다고 말하기 위해 형의 방으로 찾아갔던 것이 거짓말이라도 된 것 마냥, 막상 형이 바보 같은 얼굴로 환하게 웃으며 내 그림을 들고 있으니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포즈 생각해 둔 건 있어? 스케치를 시작한 거면 대략적인 건 다 구상해뒀을 것 아니야?"

"그렇지 뭐..."

"좋아, 어떻게 서있으면 돼?"

"그냥... 가만히 서있어봐."

사실 포즈 같은 건 생각해두지 않았다. 오히려 공모전이나 그림에 대한 것이라면 생각을 넘어 존재까지도 꺼려졌다. 다만 그렇다고 실실 웃고 있는 형의 면전에 대고, 응 사실 아무것도 생각 안 했고 내 방에서 좀 나가줘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기에 어쩔 수 없이 연필을 들었다.

형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떨떠름하게 연필을 쥐고 있는 내 앞에 섰다. 나는 모델을 앞에 세운 사람 치고는 모델을 영 쳐다보지 않고 스케치를 시작했다. 조금의 침묵이 흐른 뒤, 형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런데 너는 어떻게 그릴 거야?"

"나는 어떻게 그릴 거냐니?"

"주제가 가족이라며? 그럼 너도 그려야지, 나만 있으면 좀 이상하잖아."

"그런가?"

가족 그림에 나도 들어가야 한다면, 맞는 말이긴 했다. 보통 가족사진을 한 명 빼놓고 찍지는 않으니까. 음, 우리 집 거실에 걸려있는 가족사진에는 세 명만 있기는 한데, 내가 오기 전에 찍은 것이니 빼놓고 찍었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을 거다. 내 존재조차 몰랐을 테니까. 그럼 왜 내 존재를 안 이후로 가족사진을 새로 찍지 않은 거지? 시간이 없던 걸 수도 있고... 그냥 귀찮았던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 들어와있지 않으니 딱히 찍을 필요가 없었던 걸 수도 있고... 그렇다면 어찌 되었건 가족 중 한 명을 빼놓고 찍었다는 것은 성립하지 않네.

"형은 왜 나한테 잘해줘?"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을 때, 무심코 형에게 질문을 던졌다. 순간 아차 싶어 말을 주워 담기도 전에 형이 답을 내놓았다.

"내가 잘해줬었나? 뭐, 아이스크림 뺏어 먹거나 물총 쏜 거 밖에 기억 안 나는데. 그냥 형이 동생한테 하는 짓들이잖아. 당연한 거지."

당연한 짓이고, 그냥 형이 동생한테 하는 짓들이라, 나는 애초에 형이 왜 나한테 흔한 형제들이 하는 짓을 하는지부터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나를 형제로 느끼고 있는 건가?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친 모르는 남자애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

"뭐, 동생은 어차피 갖고 싶었고."

뒤늦게 덧붙여진 형의 웅얼거림에 다시 연필을 바로 쥐어 스케치를 마저 시작했다. 아주 간단하다 못해 알팍하다고까지 느껴질만한 이유지만 나를 마주 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좋은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림은 빠르게 완성되었다. 우리가 가기로 했던 공원의 벤치에 앉아있는 형과 나의 뒷모습. 조금만 더 손을 보고 마감일인 내일 제출할 예정이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아직까지도 확신이 서지는 않는다. 이 그림을 제출해도 될지, 만약 상을 타서 이 그림이 전시된다면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형은 어떤 표정을 지을지. 나는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그림을 들고 형의 반으로 걸음을 옮겼다. 적어도 마지막으로 형의 감상을 듣고 그림을 손본다면 이 울렁거림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서였다.

"그래서 윤하가 네 동생이라고?"

갑자기 들려오는 내 이름에 교실 문을 열려던 손을 멈추었다.

"응, 내 동생. 딱 봐도 티 나지 않나? 이름도 비슷하고."

"뭐? 야 구라 치지 마, 닳은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알아보는 게 이상한 거 아니야?"

"닳은 구석이 없긴 왜 없어? 하는 짓이나 표정이나 나를 똑 닳았는데..."

"너 보기에나 그렇지 다른 사람들 보기엔 그냥 남 같거든?"

웬지 이 상황에 본인이 등장하면 어색해질 것 같아 뒷걸음질을 쳐 내 반으로 돌아왔다.

결국 학교가 끝나고서도 형의 감상은 듣지 않았다. 완성된 그림은 전과 같이 내 책상 구석으로 가게 되었다. 이런 그림이 전시되었을 때 나와 형의 표정만 생각했지 다른 사람의 표정은 생각하지 않은 것이 실수였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하늘이 흐렸다. 막 장마철이 시작되어 곧 비가 세차게 내릴 것이라는 신호였다.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학교에 갈 준비를 했다. 세찬 비를 맞으며 등교를 하게 되는 것은 사양하고 싶었다. 평소에는 형과 같이 등교를 했으나 오늘은 굳이 형을 깨우지 않았다. 어차피 형은 늘 그랬듯이 어머니가 깨워줄 테니까.

나는 신발을 신기 전 방에 들러 완성된 그림을 내려다보았다. 그러고는 손으로 천천히 그림을 반으로 찢었다. 벤치의 나란히 앉아있는 형과 내가 멀리 떨어지게끔. 찢긴 그림은 다시 책상 구석에 놓고 재빨리 신발을 신어 집 밖으로 나갔다.

학교로 걸어가는 길은 잠에서 깨어나 처음 봤을 때와 똑같이 흐리기 짝이 없었다. 나는 언제 비가 올까 두려운 것인지 무엇인지, 도망치듯 발걸음을 빨리했다.

이것이 옳은 것이다. 따로 떨어져 있으면 거리라는 공통점마저 사라져 오직 차이만이 보이는 사이인데, 가족처럼 느낄 수 있을 리가 없다. 나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모두가 그러했듯이. 우리는 같은 집에 살 뿐인 남이나 다름없다. 반쪽짜리 피가 섞인 혈연 외 가족을 그린 것을 가족이라는 주제의 공모전에 떴듯이 낼 수 있을 리가 없다. 전시된 그림을 보고 흐뭇해하는 표정의 형 뒤로 있을 의문의 가득 찬 표정들과 싸늘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표정을 맨정신으로 볼 수 있을 리가 없다.

피로 이어져야만 가족인 걸까, 가족이라고 느껴져야만 가족인 걸까, 내가 떳떳하고 명확하게 가족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관계를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 남들이 보기에 남 같은 관계를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학교에 막 도착했을 때는 비가 세차게 오기 시작했다. 나는 아슬아슬하게 비를 피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교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나마 형은 이제야 집을 나섰을 텐데 괜찮을까, 아니, 내가 신경 쓸 일은 아니다.

"윤하야!"

갑자기 들려온 이름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미술 선생님이 서있었다. 선생님은 너무 과민한 내 반응에 당황해하면서도, 웃음을 터트리며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이고, 뭘 그리 놀라고 그래? 선생님이 귀신이라도 된 것 같네!"

"죄송합니다. 너무 갑자기 부르셔서..."

"미안할 거야 없지! 너무 큰 소리로 불러서 미안하다. 그나마, 공모전에 낼 그림은 어떻게

됐어? 오늘 점심시간까지가 마감일인 거 알지?"

너무나 환하게 웃고 있는 선생님의 얼굴 뒤로 나는 그저 멍하니 굳어있을 수밖에 없었다. 내가 처음 공모전에 나가겠다고 했을 때도, 스케치를 마치고 선을 따고 있을 때도, 항상 내가 이런 공모전에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밝게 웃던 선생님의 얼굴을, 막상 그림을 찢을 때는 떠올리지 못했다. 아마 모델이 되어주셨다며 사실 웃던 형의 얼굴도 떠올리지 못했던 것 같다. 아니, 형의 경우에는 선명히 떠올랐지만 무시해버렸다.

나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발끝을 질질 끌며 시선을 피했다. 준비 기간 내내 그림은 잘 그리고 있냐며 안부를 묻는 선생님에게 이러쿵저러쿵 상세한 근황을 보고하며 기대를 돌려었는데, 이제 와서 사실은 그림 같은 거 그린 적 없다, 공모전에 낼 그림이 없다 같은 소리를 해봤자 뻘한 거짓말이다.

그렇다고 진실을 말하자니 무엇이 진실인지도 모르겠다. 나는 왜 그림을 찢었고, 어떻게 말해야 선생님을 납득시킬 수 있는가. 그냥 그림이 마음에 안 들었어? 내게 올 관심이 부담스러웠어? 형을 내 가족이라 불렀던 걸까 무서웠어? 어느 것이든 죄다 말도 안 되는 이유다. 말도 안 되는 이유임을 알면서 나는 왜 굳이 회피하고자 그 그림을 찢어버렸는지, 웃음이 나올 지경이다.

이제 미술 선생님의 얼굴은 무언가 일이 잘못되었음을 느꼈는지 이미 미소를 잃어버린지 오래였다. 결국 내가 코 끝이 찡해져 고개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떨어지는 목소리로 무어라 말을 꺼내려 할 때,

"박윤하!!"

오늘 아침만 해도 절대 듣기 싫었던 그 목소리가 내 고개를 잡아 올렸다.

형이 물에 빠진 쥐 같은 몰골로 제 가방을 품에 소중히 안은 채 내게로 달려오고 있었다. 나는 병진 채 입을 작게 벌리고 내 앞에 선 형을 바라보았다. 형은 그나마 덜 젖은 제 가방의 지퍼를 급하게 열어 돌돌 말려진 큰 종이 한 장을 내게 건네주었다.

젖지도 않고 구겨지지도 않은 종이를 펼치자, 내가 아침에 찢었던 그 그림인 것을 볼 수 있었다. 다만 찢긴 그 자국 위로 서투게 붙여진 작은 테이프들도 함께.

"선생님, 아직 안 늦었죠? 윤하야, 마감일이 언제라고 했었지?"

"점심시간..."

"잘 됐네! 선생님, 이거요! 제출할게요!"

거칠게 숨을 내쉬며 미소 짓는 형에, 선생님은 얼떨떨하게 내게서 그림을 건네받았다.

"응, 공모전 결과는 이주 후면 나올 거야. 수고 많았어 윤하야. 윤재도."

선생님은 그림을 받아들고 미술실로 걸음을 옮겼다. 나는 여전히 멍한 얼굴로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형에게로 눈길을 돌렸다. 형은 언제나 그랬듯이, 그저 나를 보며 씩 웃고 있었다. 이주 뒤, 내 그림은 금상을 타고 복도에 다른 그림들과 전시되었다. 그림의 아래쪽에는 미처 제목을 정하지 못해 수상 소식을 접한 후에 황급히 정한 제목이 작은 금색의 판에 새겨져 있었다. 찢겨도 다시 붙는.

## 고등부 우수상, 조수영, 아람고등학교

정오마다 태양에 대해 들어야 하는 일에  
당신은 어쩌면 조금 질려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류장에 앉아서  
우리는 많은 풍경을 봅니다

버스 옆구리에 붙어서 지나가는 광고들이나  
좀처럼 가볼 마음이 생기지 않는 식당들

당신은 그런 것들에  
특별히 더 말을 붙이지 않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는 존재는 자신뿐만이 아니라는 듯

대신 우리는 평소처럼  
아스팔트에 떨어지는 태양에 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당신은 타오르거나 끓어오른다는 나의 표현에  
의아해하지 않습니다

나는 땀을 흘리는 당신에게  
부채질할 수 있는 용기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끔 당신의 눈동자에  
굴러가는 바퀴나 가게의 간판이  
비쳐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는 여름의 온도가 불편해집니다

이런 대화를 계속하는 게  
불쾌지수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우리는 그렇게 태양을 보내야 하고

자정이 되면 어디에서든 달이 보입니다  
그림자가 물든 벤치에서도 이야기를 나누곤 하지만

오늘은 더 이상 달나라에 대해  
떠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달의 흉터를 미워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난 망설임을 대신합니다

우리가 지내고 있는 동네 뒷산의 밤 부엉이는  
어떤 감정으로 우는지  
본 적이 없다면 어떤 색의 눈으로 밤을 새울 거 같은지

그런 말들을 건네봅니다

우리에겐 오늘부터 좋은 주제가 될 거라는 생각으로  
한 걸음 뻗어봅니다

# 냄새 지도

## 중등부 대상, 민희주, 호수돈여자중학교

### 1장. 시작

내 이름은 김서연, 중학교 3학년이다. 남들보다 코가 좀 예민한 편이라서, 어릴 때부터 냄새만 맡으면 그와 관련된 기억들이 확 떠올랐다.

엄마는 그런 나를 보고 "신기한 아이"라고 했고, 친구들은 가끔 "냄새 탐정"이라고 놀렸다. 처음엔 부끄러웠는데, 지금은 나만의 특별한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2학기 자유연구 주제를 정해야 하는데, 뭘 할지 고민이었다. 과학실험은 어렵고, 역사 조사는 재미없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지하철에서 내린 순간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신당역 2호선에서 내리면서, 갑자기 코를 자극하는 여러 냄새들이 섞여왔다. 지하철 특유의 쇠 냄새, 어디선가 날아오는 마늘 냄새, 그리고 뭔가 매콤하면서도 낯선 향신료 냄새까지.

"아, 이거다!"

나는 그 순간 확신했다. 우리 동네 냄새들을 탐험해보자. 그리고 그 냄새들이 어디서 오는지, 누가 만들어내는지 알아보자.

집에 돌아와서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 나 자유연구로 냄새 조사하려고."

"냄새?"

"응. 우리 동네에 외국인들이 많이 살잖아. 그 사람들이 만드는 음식 냄새들 말이야. 궁금해."

엄마는 잠깐 생각하더니 웃으며 말했다.

"재밌겠다. 근데 위험하지 않은 곳만 다녀야 해."

"당연하지!"

이렇게 내 냄새 탐험이 시작되었다.

### 2장. 첫 번째 탐험 - 가리봉동

첫 번째로 간 곳은 가리봉동이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중국 조선족분들이 많이 사는 곳이라고 했다. 토요일 오후, 엄마와 함께 지하철을 타고 갔다.

역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냄새가 확실히 달랐다. 우리 동네와는 완전히 다른 향신료 냄새가 공기 중에 떠돌았다.

"우와, 정말 다르다."

나는 작은 노트를 꺼내서 냄새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그냥 '매운 냄새', '고소한 냄새'

이런 식으로 썼는데, 점점 더 자세히 써보고 싶어졌다.

골목으로 들어가니 양꼬치 가게들이 많았다.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곳마다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

"여기 냄새, 커민이라는 향신료 냄새야."

엄마가 설명해줬다.

"처음 알아보는 냄새인데 왜 이렇게 배가 고프지?"

한 손만두 가게 앞에서 할머니 한 분이 나를 보고 웃으셨다.

"학생, 이 냄새 어때?"

"신기해요. 우리 집 만두랑 냄새가 다른데,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 한 개 먹어볼래?"

할머니께서 갓 찌낸 만두 하나를 주셨다. 입에 넣는 순간, 향신료의 진한 맛이 입 안에 퍼졌다.

"맛있어요!"

"우리 고향 만두야. 한국 만두보다 양념이 좀 더 많이 들어가지."

할머니는 잠깐 먼 곳을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셨다.

"이 냄새 맡으면 어릴 때 생각나. 엄마가 만들어주던 만두 냄새 말이야."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냄새는 단순히 향이 아니라 기억이구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엄마가 물었다.

"어땠어?"

"신기했어. 냄새 하나로 다른 나라에 온 기분이었어. 그런데..."

"그런데?"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중국 음식 냄새 때문에 머리 아프다고 하시더라고."

엄마는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다.

"사람마다 다르지. 어떤 사람에겐 그리운 냄새고, 어떤 사람에겐 낯선 냄새겠지."

그날 밤, 나는 첫 번째 탐험 일기를 썼다.

오늘의 냄새: 커민, 양꼬치, 손만두

느낀 점: 냄새는 기억을 부르는 것 같다. 할머니의 표정을 보니 그냥 냄새가 아니라 고향의 기억인 것 같았다.

궁금한 점: 왜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싫어할까?

### 3장. 두 번째 탐험 - 이태원

두 번째 탐험지는 이태원이었다. 여기는 엄마도 가끔 가는 곳이라서 좀 더 편안했다.

"여기는 정말 여러 나라 사람들이 살아."

엄마 말이 맞았다. 걸어가면서 들리는 언어도 다양했고, 음식점 간판들도 영어, 아랍어, 태국어

등 여러 글자로 쓰여 있었다.

이슬람 사원 근처에 가니 또 다른 냄새가 났다. 양고기 굽는 냄새인데, 가리봉동의 양꼬치와는 또 달랐다. 더 진하고 향신료가 많이 들어간 것 같았다.

"이거 뭐예요?"

파키스탄 식당 아저씨가 친절하게 설명해주셨다.

"비리야니라고 하는 밥 요리야. 사프란이라는 향신료가 들어가서 이런 냄새가 나는 거야."

아저씨는 작은 접시에 비리야니를 조금 주셨다. 쌀밥인데 노란색이었고, 입에 넣으니 달콤하면서도 향긋한 맛이 났다.

"한국에 온 지 얼마나 되셨어요?"

"8년 됐어. 처음엔 이 냄새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우리 가게를 피하는 것 같아서 속상했어."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 특히 학생들처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와주니까 고마워."

그 말을 듣고 괜히 뿌듯했다.

터키 아이스크림 가게에서는 또 다른 냄새를 맡았다. 달콤한 아이스크림 냄새에 뭔가 특별한 향이 섞여 있었다.

"이건 장미 향이야."

아이스크림 아저씨가 설명해주셨다.

"터키에서는 장미 맛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어. 처음엔 이상하게 느낄 수도 있지만, 먹다 보면 중독돼."

정말로 그랬다. 처음엔 비누 냄새 같다고 생각했는데, 두 번째 한입을 먹으니 은은하고 우아한 맛이었다.

그날의 수확은 이것이었다: 냄새는 익숙해질 수 있구나.

#### 4장. 세 번째 탐험 - 안산 원곡동

엄마가 "이번엔 좀 더 멀리 가볼까?"라고 해서 안산 원곡동에 갔다. 여기는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많이 산다고 했다.

지하철을 오래 타고 가서 그런지, 확실히 분위기가 달랐다. 간판들도 태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로 쓰인 것들이 많았다.

첫 번째로 들어간 곳은 베트남 쌀국수집이었다. 문을 열자마자 맑고 깔끔한 국물 냄새가 코를 찔렀다.

"아, 이 냄새 좋다!"

사장님이 웃으며 말씀하셨다.

"포라고 하는 음식이야. 우리나라 대표 음식이지."

"한국 곰탕이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맞아. 뼈 우린 국물이니깐.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채소들이 달라. 고수, 민트, 라임..."

사장님은 리 씨라고 하셨는데, 한국에 온 지 12년이 되었다고 했다.

"처음엔 한국 손님들이 고수 냄새를 싫어해서 힘들었어요. 지금은 고수 빼달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 따로 준비해요."

"저는 괜찮은데요?"

"그래? 그럼 정말 포를 제대로 맛볼 수 있겠네."

리 씨가 정성스럽게 만들어주신 포를 먹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냄새 때문에 처음엔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맞춰가고 있구나.

옆 테이블에 앉은 한국인 아주머니가 말씀하셨다.

"여기 포가 정말 맛있어요. 우리 가족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요."

그 말을 듣고 리 씨가 정말 기뻐하셨다.

필리핀 마트에서는 처음 맡아보는 강한 냄새를 맡았다.

"이게 뭐예요?"

"바고옹이라고 하는 것 같이야. 우리는 이걸 요리할 때 많이 써."

사장님인 마리아 씨가 설명해주셨다.

"냄새가 좀 강하지? 한국 것 같고 비슷해. 처음엔 이상해도 요리에 넣으면 감칠맛이 나."

정말로 그랬다. 그냥 맡을 때는 너무 강했는데, 마리아 씨가 만들어주신 아도보라는 요리를 먹어보니 것같은 짠맛이 고기와 잘 어울렸다.

"매달 필리핀에서 가져와요. 이게 없으면 우리 요리를 제대로 할 수 없어요."

태국 식당에서는 또 다른 냄새를 맡았다. 새콤하면서도 매운 냄새.

"똥암공이야. 태국 대표 음식이지."

사장님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셨다.

"레몬그라스, 라임잎, 생강...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이런 냄새가 나는 거야."

한 모금 마셔보니 정말 신기했다. 맵고 시고 단맛이 동시에 느껴졌다.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왜 이렇게 중독적이지?"

"그게 태국 음식의 매력이야. 여러 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거지."

그날 돌아오면서 깨달은 것은, 냄새는 그냥 그곳에 있는 것이고, 사람들은 각자의 속도로 익숙해져 간다는 것이었다.

#### 5장. 학교에서의 반응

월요일에 학교에 가서 친구들에게 주말 탐험 이야기를 했다.

"너 진짜 특이하다. 냄새 때문에 그런 데까지 가?"

민지가 신기하다는 듯 말했다.

"재밌던데? 우리도 같이 가볼래?"

지혜가 관심을 보였다.

"좋아! 다음에 같이 가자."

점심시간에 담임선생님께서 내 자유연구에 대해 물어보셨다.

"서연아, 냄새 연구 어떻게 되어가?"

"재밌어요, 선생님. 냄새로 다른 나라 문화를 알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그래? 어떤 것들을 발견했는데?"

나는 그동안의 경험들을 이야기했다. 할머니의 그리운 표정, 냄새 때문에 처음엔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해가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냄새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과정들을.

"정말 의미 있는 연구네. 계속해봐."

선생님이 격려해주셨다.

그런데 집에 가는 길에 버스에서 이런 대화를 들었다.

"오즘 우리 동네에 외국인들이 너무 많아져서 냄새가 이상해."

"맞아. 애들 급식도 그런 냄새 날까 봐 걱정이야."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다. 내가 만난 사람들은 모두 좋은 분들이었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까?

집에 와서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왜 어떤 사람들은 외국 음식 냄새를 싫어할까?"

엄마는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다.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 우리도 처음 김치 먹는 외국인들이 냄새 때문에 놀라는 거 봤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서연이가 하는 것처럼, 직접 경험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아닐까? 냄새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야."

그날 밤, 나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단순히 냄새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그 냄새들을 사람들에게 소개해보자.

## 6장. 작은 실험

수요일, 학교에서 작은 실험을 해봤다. 점심시간에 친구들을 모아놓고 지난주에 사온 향신료들을 맡아보게 했다.

"이건 커민이야. 중동이나 인도 요리에 많이 써."

"우와, 이거 카레 냄새다!"

수빈이가 반가워했다.

"이건 레몬그라스. 태국 음식에 들어가는 거야."

"향수 냄새 같은데?"

영은이가 신기해했다.

"이건 고수. 베트남 쌀국수에 들어가는 채소야."

"어? 이거 비누 냄새 아니야?"

몇몇 친구들이 고개를 찌푸렸다.

"처음엔 나도 그랬어. 근데 실제로 음식에서 맛보면 완전 다르거든."

그날 방과 후, 관심 있는 친구들과 함께 이태원에 갔다. 엄마도 함께 가주셨다.

처음엔 겁내던 친구들이 실제로 음식을 맛보고는 생각이 바뀌었다.

"와, 터키 아이스크림 진짜 맛있다!"

"이 인도 커리, 우리가 아는 카레랑 완전 달라!"

"베트남 쌀국수 국물 완전 시원해!"

가장 놀란 건 민지였다.

"서연아, 너 말이 맞아. 냄새만으로는 몰랐는데, 직접 먹어보니 완전 다르네."

집에 돌아와서 친구들이 한 말들을 정리해봤다.

처음 냄새만 맡았을 때와 실제로 먹어봤을 때의 반응이 완전히 달랐다.

친구들 대부분이 "생각보다 맛있다"고 했다.

냄새에 대한 편견이 실제 경험으로 바뀌었다.

## 7장. 더 깊은 이야기들

토요일, 이번엔 혼자서 가리봉동에 다시 갔다. 지난번에 만두를 주셨던 할머니를 다시 만나고 싶었다.

"어? 또 왔구나."

할머니께서 나를 알아보시고 반가워하셨다.

"네, 할머니. 지난번에 말씀하신 고향 이야기가 계속 궁금했어요."

할머니는 잠깐 손을 멈추시더니 옆 의자를 가리키셨다.

"앉아봐. 이야기해줄게."

할머니의 이야기는 생각보다 깊었다.

"나는 중국에서 태어났지만, 우리 부모님은 원래 북한 분이셨어.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한국 음식을 먹고 자랐지."

"그럼 중국 음식도 한국 음식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내가 아는 한국 음식과 여기 한국 음식이 조금씩 달라."

"어떻게 달라요?"

"김치만 해도 그래. 우리가 만든 김치는 좀 더 시원하고, 여기 김치는 좀 더 달아. 똑같은 김치인데 조금씩 다른 거야."

그 말을 듣고 신기했다. 같은 음식도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구나.

"그럼 할머니가 만드시는 만두는?"

"우리 고향 스타일이야. 중국식이기도 하고 한국식이기도 하고. 섞인 거지."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여기서 나는 냄새들도 그런 게 아닐까? 원래 그 나라 음식 그대로가 아니라, 한국에서 조금씩 변화한 것들.

옆 테이블에 앉은 중국인 아저씨가 말씀하셨다.

"한국 사람들 입맛에 맞추려고 조금씩 바꿨어요. 덜 맵게, 덜 짜게."

"그럼 고향 맛과는 다른 거예요?"

"조금 달라요. 근데 이것도 우리 맛이 되었어요. 한국에서 사는 우리들의 맛."

그날, 나는 중요한 것을 하나 더 배웠다. 냄새와 맛은 고정된 게 아니라 변화하고 적응하는 것이구나.

## 8장. 학교 발표 준비

11월이 되어서 자유연구 발표를 준비해야 했다. 선생님께서 발표 방법을 자유롭게 하라고 하셨다.

나는 특별한 방법을 생각했다. 단순히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게 아니라, 직접 냄새를 맡아보게 하는 거였다.

집에서 엄마와 함께 준비했다.

"향신료들을 작은 병에 담아서 친구들이 맡아볼 수 있게 하면 어떨까?"

"좋은 생각이야. 그런데 냄새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

"맞아. 그래서 각 냄새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들려주려고."

나는 그동안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정리했다.

커민: 할머니의 고향 만두 이야기

사프란: 파키스탄 아저씨의 적응기

고수: 베트남 리 씨의 배려 이야기

레몬그라스: 태국 음식의 조화

각각의 냄새 뒤에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었다.

발표용 자료도 만들었다. 지도에 내가 갔던 곳들을 표시하고, 각 지역의 대표 냄새들을

그림으로 그렸다.

그런데 발표를 준비하면서 고민이 생겼다. 일부 사람들이 이런 냄새들을 불편해한다는 것도 이야기해야 할까?

엄마와 상의했다.

"서연이 생각에는 어떤 게 맞는 것 같아?"

"음... 진실을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좋은 이야기만 하면 가짜 같잖아."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불편해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이해한다고 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냄새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고 말할 거야."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맞는 것 같아. 균형 잡힌 시각이 중요하지."

## 9장. 발표의 날

발표 당일, 나는 떨렸다. 향신료 병들과 준비한 자료들을 들고 교실에 들어갔다.

"오늘은 서연이가 냄새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소개로 발표가 시작되었다.

"여러분, 냄새로 여행해본 적 있나요?"

나는 이렇게 시작했다.

"저는 이번 여름방학과 2학기 동안 냄새를 따라 우리 주변의 다문화 지역들을 탐험했습니다."

첫 번째로 커민 향을 맡아보게 했다.

"이 냄새, 어디서 맡아본 것 같지 않나요?"

"카레!"

여러 친구들이 대답했다.

"맞아요. 이건 커민이라는 향신료예요. 중동, 인도, 중국 요리에 많이 사용돼요."

나는 가리봉동에서 만난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줬다.

"할머니에게는 그냥 향신료 냄새가 아니라 어릴 때 어머니가 끓여주던 국수의 기억이었어요."

친구들이 집중해서 들었다.

두 번째는 고수였다.

"이 냄새는 어때요?"

"비누 냄새!"

"이상해!"

몇몇 친구들이 얼굴을 찌푸렸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베트남 쌀국수집 사장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나는 리 씨가 한국 손님들을 위해 고수를 따로 준비한다는 이야기를 들려줬다.  
 "사장님은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한다는 걸 이해하고 배려해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용기를 내서 맛봤더니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세 번째는 레몬그라스였다.  
 "이건 어때요?"  
 "향수 냄새 같아!"  
 "상큼해!"  
 반응이 좋았다.  
 "이건 태국 음식에 들어가는 레몬그라스예요. 태국 음식은 여러 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게 특징이래요."  
 마지막으로는 사프란이었다.  
 "이 냄새는 정말 특별해요. 파키스탄 비리야니에 들어가는 사프란이에요."  
 나는 파키스탄 아저씨가 처음엔 냄새 때문에 손님들이 피한다고 속상해했다는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그 맛을 알고 찾아간다고 하셨어요."  
 발표를 마치면서,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이런 냄새들을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익숙하지 않아서 불편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의 마음도 이해해요."  
 "하지만 제가 이번 탐험을 통해 배운 건, 냄새 뒤에는 항상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이 고향을 그리워하고, 가족을 생각하고, 더 나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분들이에요."  
 교실이 조용해졌다.  
 "냄새는 처음엔 낯설 수 있지만, 그 뒤의 이야기를 알고 나면 달라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번 연구 제목을 '냄새 지도'라고 정했어요. 냄새를 따라가면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거든요."  
 발표가 끝나자 친구들이 박수를 쳤다.  
 "와, 서연아, 정말 대단하다!"  
 "나도 가보고 싶어!"  
 "다음에 같이 가자!"  
 선생님께서도 칭찬해주셨다.  
 "정말 의미 있는 연구였어요. 단순히 조사에서 끝나지 않고 직접 경험하고 사람들을 만났다는 게 훌륭해요."  
 그 순간, 나는 정말 뿌듯했다.

10장. 뜻밖의 반응  
 발표 이후, 뜻밖의 일들이 일어났다.  
 먼저 친구들이 정말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서연아, 이번 주말에 이태원 가자!"  
 "나도 베트남 쌀국수 먹어보고 싶어!"  
 지혜, 민지, 수빈이, 영은이까지 함께 가자고 했다.  
 토요일에 다섯 명이 함께 이태원에 갔다. 엄마와 지혜 엄마가 함께 따라와 주셨다.  
 "와, 여기 정말 다른 나라 같다!"  
 친구들이 신기해했다.  
 파키스탄 식당에서 아저씨가 우리를 보고 웃으셨다.  
 "어? 저번에 온 학생이네. 친구들도 데려왔구나."  
 "네, 제 발표를 듣고 친구들이 와보고 싶다고 했어요."  
 아저씨가 특별히 여러 가지 음식을 맛보게 해주셨다.  
 "이거 진짜 맛있다!"  
 "냄새만 맡을 때랑 완전 달라!"  
 친구들의 반응이 내가 처음 왔을 때와 똑같았다.  
 베트남 식당에서도 리 씨가 반가워해주셨다.  
 "학생들이 많이 왔네요. 좋아요, 좋아요."  
 리 씨는 우리를 위해 특별히 고수를 따로 준비해주셨다.  
 "고수 괜찮은 친구들은 넣어서 먹어보세요. 진짜 베트남 맛을 느낄 수 있어요."  
 용감한 수빈이가 먼저 도전했다.  
 "어? 생각보다 괜찮은데?"  
 그러자 다른 친구들도 하나씩 시도해봤다.  
 "와, 이거 상큼하다!"  
 "처음엔 이상했는데 씹을수록 맛있어!"  
 그날 이후로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냄새 탐험'을 하기로 했다.  
 더 놀라운 건 학부모들의 반응이었다.  
 지혜 엄마가 카카오톡 단체방에 글을 올리셨다.  
 "서연이 덕분에 아이들이 다른 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정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엄마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우리도 아이들과 함께 가보고 싶어요."  
 "다음번에는 우리 가족도 끼워주세요."  
 심지어 담임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다.

"서연이 연구를 계기로 우리 반에서 다문화 체험 활동을 해보면 어떨까요?"

### 11장. 작은 변화들

12월이 되면서, 내 주변에서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우선 우리 가족부터 달라졌다. 주말마다 다른 나라 음식을 먹어보러 가는 게 일상이 되었다.

"오늘은 어디 가볼까?"

엄마가 물으면, 나는 새로 발견한 맛집을 추천했다.

"인도 커리집 가보자! 정말 진짜 인도 맛이래."

아빠도 처음엔 "냄새 때문에 괜찮을까?" 하고 걱정하셨지만, 직접 가보시고는 생각이 바뀌었다.

"와, 이거 완전 맛있네! 왜 이제야 알았지?"

친구들도 마찬가지였다.

민지는 집에서 베트남 쌀국수를 끓여보겠다고 어머니께 레시피를 찾아달라고 했다.

지혜는 터키 아이스크림이 너무 맛있으면서 생일파티 때 터키 아이스크림을 주문했다.

수빈이는 인도 커리에 빠져서 집 근처 인도 식당의 단골이 되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영은이었다. 원래 편식이 심했던 영은이가 "새로운 음식 도전하기"에 폭 빠졌다.

"서연아, 이번엔 어떤 나라 음식 먹어볼까?"

심지어 영은이 어머니께서 나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기도 하셨다.

"서연이 덕분에 영은이가 음식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학교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우리 반에서 '세계 음식의 날' 행사를 하게 되었다. 각자 다른 나라 음식을 하나씩 준비해서 함께 나눠 먹는 거였다.

나는 당연히 베트남 쌀국수를 준비했고, 친구들도 각자 관심 있는 나라 음식을 준비했다.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이 냄새 처음엔 이상했는데 먹어보니 좋네!"

교실에서 여러 나라 냄새가 섞이는 게 신기했다. 처음엔 어수선했던 것 같았는데, 오히려 풍성하고 따뜻한 느낌이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다양한 냄새들이 한 교실에 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죠? 오히려 재밌고 즐거워요."

그 말에 친구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 12장. 새로운 발견

겨울방학이 되어서, 나는 더 체계적으로 냄새 탐험을 해보기로 했다.

이번에는 우리 동네 가까운 곳부터 시작했다. 집 근처에도 생각보다 다양한 냄새들이 있었다. 우리 아파트 상가에 새로 생긴 멕시코 음식점.

"타코스 냄새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

향신료와 고기, 야채가 어우러진 냄새가 입맛을 돋웠다.

사장님은 멕시코에서 온 카를로스 씨였다.

"한국 사람들이 멕시코 음식을 많이 안 알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걱정했는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요."

"어떤 게 가장 인기예요?"

"타코스! 그리고 부리또. 매운 걸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이라서 살사소스도 잘 드세요."

옆 건물에는 일본 라멘집이 있었다.

"일본 음식은 익숙할 줄 알았는데, 진짜 일본 라멘은 우리가 아는 라멘과 다르네."

사장님이 설명해주었다.

"이건 돈코츠 라멘이에요. 돼지뼈를 12시간 동안 끓여서 만든 육수예요."

진짜로 깊고 진한 맛이였다.

### 13장. 6개월 후

자유연구를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다. 중학교 3학년 2학기 끝자락에 이르러, 나는 그동안의 경험들을 돌아봤다.

처음엔 단순히 냄새가 궁금해서 시작한 일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다.

첫 번째로 달라진 것은 음식에 대한 태도였다. 예전에는 낯선 음식을 보면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새롭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사람들을 보는 관점이었다. 길에서 외국인을 만나면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는데, 이제는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할지 궁금해진다.

세 번째는 친구들과의 관계였다. 함께 새로운 음식을 도전하고, 다른 문화를 체험하면서 더 친해졌다.

네 번째는 가족과의 시간이었다. 주말마다 가족과 함께 다른 나라 음식을 먹으러 가는 게 우리 가족만의 특별한 추억이 되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작은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것이었다.

내 발표를 들은 친구들이 변했고, 그 친구들의 가족들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우리 반에서 세계 음식의 날 행사를 하게 되었고, 다른 반에서도 비슷한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학교 급식에서도 가끔 다른 나라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다.

"오늘 급식이 인도 커리래!"

"진짜? 와, 대박!"

처음엔 "냄새 이상하다"고 투덜거렸던 친구들도, 이제는 "새로운 음식이 나오면 재밌겠다"고 말한다.

#### 14장. 마지막 탐험

고등학교 입학 앞둔 2월, 나는 마지막 중학생 탐험을 계획했다.

이번에는 특별한 곳을 가기로 했다. 서울역 근처에 있는 '세계음식문화거리'였다.

여기는 정말 여러 나라 음식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다. 한 블록 안에 중국, 베트남, 태국, 인도, 터키, 멕시코, 페루, 브라질 음식점들이 있었다.

"와, 여기 진짜 유엔 같다!"

함께 간 친구들이 놀라워했다.

우리는 각자 다른 나라 음식을 하나씩 주문해서 나눠 먹기로 했다.

나는 페루 음식을 골랐다. 처음 먹어보는 거였다.

"세비체라는 요리예요. 생선을 라임으로 절인 거예요."

사장님이 설명해주셨다.

신기했다. 생선이지만 라임의 산성으로 익은 거라고 했다. 상큼하고 깔끔한 맛이었다.

민지는 브라질 음식을 골랐다.

"파스테우라는 튀김 요리예요. 브라질 길거리 음식이에요."

바삭하고 고소했다.

지혜는 에티오피아 음식을 도전했다.

"인제라라는 빵이에요. 스펀지 같죠?"

정말 스펀지처럼 구멍이 많은 빵이었다. 신맛이 나면서도 쫄깃했다.

수빈이는 모로코 음식을 선택했다.

"타진이라는 스투예요. 이 특별한 뚜껑 모양 냄비에서 이름이 나왔어요."

달콤하면서도 향신료가 진한 맛이었다.

영은이는 그리스 음식을 골랐다.

"무사카라는 그라탱 비슷한 요리예요."

가지와 고기, 치즈가 층층이 쌓인 요리였다.

우리는 각자의 음식을 돌려가며 맛봤다.

"와, 세상에 이런 맛들이 다 있었구나!"

"냄새만으로는 상상도 못 했을 맛들이야!"

그날 우리는 5개국의 음식을 맛봤다. 그리고 각 나라의 사장님들과 이야기도 나눴다.

페루 사장님은 "한국 사람들이 생선회를 좋아해서 세비체도 잘 받아들여줘요"라고 하셨다.

브라질 사장님은 "한국의 튀김 문화와 비슷한 면이 있어서 친숙해요"라고 하셨다.

에티오피아 사장님은 "한국의 발효음식 문화와 우리 인제라가 비슷한 점이 있어요"라고 하셨다.

그 말들을 들으면서, 나는 또 하나의 깨달음을 얻었다.

완전히 다른 것 같아도, 어디선가 연결점이 있구나.

#### 15장. 결론

집에 돌아와서, 나는 6개월 동안의 탐험을 정리해봤다.

내가 간 곳들:

가리봉동 (중국, 조선족 문화)

이태원 (중동, 파키스탄, 터키 문화)

안산 원곡동 (동남아시아 문화)

우리 동네 (멕시코, 일본, 중동 문화)

세계음식문화거리 (남미, 아프리카, 유럽 문화)

내가 맛본 냄새들:

커민, 사프란, 고수, 레몬그라스, 바고웅, 로즈마리, 카르다몸, 자타르, 라임, 향신료 등등...

내가 만난 사람들:

할머니, 아저씨들, 사장님들, 그리고 그분들의 이야기들...

그리고 내가 배운 것들:

첫째, 냄새는 기억이다.

각각의 냄새에는 누군가의 고향, 어린 시절, 가족의 기억이 담겨 있다.

둘째, 냄새는 적응된다.

처음엔 낯설었던 냄새도 몇 번 경험하면 익숙해지고, 때로는 좋아하게 된다.

셋째, 냄새는 변화한다.

각 나라의 음식도 한국에서 조금씩 변화하면서 새로운 맛을 만들어낸다.

넷째, 냄새는 연결한다.

완전히 다른 문화 같아도 어딘가에서 연결점을 찾을 수 있다.

다섯째, 냄새는 이해의 시작이다.

냄새를 통해 그 문화를 이해하게 되고, 사람들을 이해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냄새 뒤에는 항상 사람이 있다.

그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이 고향을 그리워하고, 가족을 생각하고, 더 나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평범한 사람들이다.

냄새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창구였다.

#### 16장. 새로운 시작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나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고등학교에서도 이런 활동을 계속하고 싶었다. 더 많은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싶었다.

입학 첫 날, 자기소개 시간에 나는 이렇게 말했다.

"안녕하세요, 김서연입니다. 저는 냄새로 세상을 탐험하는 걸 좋아해요. 관심 있는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나라 음식을 먹으러 다니고 싶어요."

몇몇 친구들이 관심을 보였다.

"나도 관심 있어!"

"재밌겠다!"

첫 번째 탐험은 학교 근처 태국 음식점으로 정했다.

"여기 퐁얌꿍 진짜 맛있어요."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하는 첫 번째 냄새 탐험. 설레었다.

그리고 나는 확신했다.

이 작은 탐험들이 모여서, 언젠가는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라고.

우리 모두가 서로의 냄새를, 서로의 문화를, 서로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세상을 만들어낼 거라고.

냄새는 여전히 내 주위에 있다. 지하철에서, 길거리에서, 새로운 식당에서.

그리고 나는 여전히 그 냄새들을 따라간다.

새로운 이야기들을 찾아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러.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러.

#### 에필로그 - 1년 후

고등학교 1학년이 끝나가는 지금, 나는 돌아본다.

우리 학교에는 이제 '세계문화탐험동아리'가 생겼다. 내가 만든 동아리다. 20명의 학생들이 함께 활동하고 있다.

매달 한 번씩 다른 나라 음식을 탐험하고, 그 나라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지난달에는 네팔 음식점에 갔었다. 모모라는 만두를 먹으면서 네팔 사장님의 히말라야

이야기를 들었다.

이번 달에는 우즈베키스탄 음식점에 갈 예정이다. 플로프라는 밥 요리를 먹어볼 거다.

그리고 내년에는 더 큰 계획이 있다.

우리 학교 축제에서 '세계냄새박물관'을 만들어보는 거다. 중학교 때 상상했던 그 박물관을 실제로 만들어보고 싶다.

여러 나라의 향신료들을 전시하고, 각각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사람들이 직접 냄새를 맡아볼 수 있게 하는 거다.

그리고 언젠가는, 정말로 냄새를 연구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냄새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냄새가 어떻게 기억과 연결되는지, 냄새가 어떻게 문화를 만들어가는지 연구하고 싶다.

지금도 나는 매일 아침 집을 나서면서 깊이 숨을 들이마신다.

오늘은 어떤 냄새를 만나게 될까?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까?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까?

냄새는 여전히 나의 나침반이다.

새로운 세상으로 이끌어주는 안내자다.

그리고 나는 그 냄새들을 따라가며 계속 성장하고 있다.

한 번에 한 냄새씩.

한 번에 한 이야기씩.

한 번에 한 사람씩.....

# 시선의 전환

중등부 최우수상, **박수빈**, 원주여자중학교

너의 파란 눈은  
낮선 어둠 같아  
우와, 푸른 바다가 들어 있네

너의 노란 머리카락은  
영킨 실타래 같아  
우와, 예쁜 개나리가 폈네

너의 까만 피부는  
어둠 속 그림자 같아  
우와, 달콤한 초콜릿이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세상이 달라져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마음이 열려

서로 다른 빛깔이  
함께 어울려 빛날 때  
진짜 세상이 시작돼

# 세 번째 여름, 첫 번째 친구

중등부 우수상, **김단아**, 충남여자중학교

올해도 어김없이 여름의 냄새가 나를 집어삼켰다. 풀물이 든 손수건처럼 축축한 공기, 아스팔트 대신 흙먼지가 날리는 시골길, 그리고 도시의 소음을 지워버리는 매미 소리.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교복을 입기 시작한 지 겨우 한 학기. 어색한 넥타이와 무릎을 덮는 치마에 이제 막 적응하던 나에게, 외할머니 댁에서의 여름방학은 시간이 멈춰버린 낯은 흑백영화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았다.

올해가 세 번째 여름이었다. 그건 곧, 내가 저 애, 리안을 본 지도 세 번째가 되었다는 뜻이다.

리안네는 내가 초등학교 5학년이던 여름, 마을 가장 구석, 오랫동안 아무도 살지 않던 파란 지붕 집으로 이사 왔다. 동네 어른들은 그 집을 그냥 ‘아랫집’ 혹은 ‘새댁네’라고 불렀다. 리안의 어머니는 아주 덥고 야자수가 많은 나라에서 왔다고 했다. 첫째 여름, 나는 그 애가 신기했다. 나와는 다른 까만 눈동자, 조금 다른 억양의 말투. 하지만 그뿐이었다. 우리는 서로의 궤도를 맴도는 작은 행성처럼, 결코 부딪히는 일 없이 각자의 여름을 보냈다.

작년 여름, 그러니까 내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을 때, 나는 조금 다른 의미로 그 애를 보기 시작했다. 중학교 입학 앞두고, 나는 보이지 않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새로운 교실, 새로운 친구들, 완전히 달라질 나의 세계. 혼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나는 늘 혼자였던 리안을 떠올렸다. 파란 대문 앞에 쭈그리고 앉아 시멘트 바닥에 그림을 그리던 아이. 그 애의 등은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섬처럼 보였다.

그리고 지금, 나는 진짜 중학생이 되었다. 우리 반 아이들은 이미 서너 개의 무리로 나뉘어 있었다. 나는 그 어디에도 완벽하게 속하지 못한 채, 이리저리 휩쓸리는 조각배 같았다. 점심을 먹을 때도, 이동수업을 갈 때도, 나는 누군가의 등 뒤에 서서 어색하게 웃는 법을 먼저 배워야 했다. 그래서였을까. 이번 여름, 리안의 침묵은 내게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그건 더 이상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었다. 수많은 시선과 편견에 맞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두른, 단단한 갑옷처럼 느껴졌다.

“문학은 우리 사회의 약한 곳을 비추는 거울과 같아요.”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나기 직전, 국어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선생님은 ‘펄벅’이라는 작가에 대해 이야기해주셨다. 아주 오래전,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하기 위해 평생을 바친 사람. 나는 리안을 보며 생각했다. 만약 내가 글을 쓴다면, 나는 리안의 이야기를 쓸 수 있을까. 저 침묵이라는 갑옷 속에 숨겨진 진짜 목소리를.

그날도 나는 도망치듯 언덕에 올랐다. 스케치북을 펼치는 순간만큼은, 복잡한 교실의 관계도,

나를 향한 그 누구의 시선도 의식할 필요가 없었다. 낡은 기와지붕의 선을 그리고, 비뿔어진 담벼락에 색을 입히고 있을 때였다. 등 뒤에서 풀이 스치는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리안이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내 가장 비밀스러운 일기장을 들켜버린 기분이었다. 나는 반사적으로 스케치북을 가슴에 끌어안았다. 어색한 공기가 우리 사이에 끈적하게 흘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리안이었다.

“...예쁘다.”

조금은 어눌했지만, 낯선 음계가 섞인 그 한마디는 내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너... 그림... 잘 그린다.”

나는 괜히 통명스럽게 대답했다. “그냥... 심심해서.”

“나도... 그림, 좋아해.”

리안은 그렇게 말하며 내 옆에 조심스럽게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는 가느다란 나뭇가지를 주워 맨땅에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다. 커다란 눈과 동그란 귀를 가진, 어딘가 슬퍼 보이는 고양이였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품에 안고 있던 스케치북을 펼쳐 리안 쪽으로 밀었다.

“여기다 그려.”

리안의 눈이 보름달처럼 커졌다. 잠시 내 눈치를 살피던 아이는, 이내 내가 내민 4B 연필을 받아 들었다. 내 스케치북의 하얀 여백에, 리안의 고양이 그림이 조심스럽게 자리를 잡았다.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소통이었다.

그날 이후, 스케치북은 우리의 언어가 되었다. 말이 서툰 리안과, 말이 없는 나 사이에서 그림은 가장 완벽한 통역사였다. 내가 할머니 댁 마당을 어슬렁거리는 누렁이를 그리면, 리안은 베트남의 집에 두고 왔다는, 꼬리가 구름처럼 풍성한 하얀 고양이를 그렸다. 내가 서울의 숨막히는 아파트 숲을 그리면, 리안은 초록색 야자수가 하늘을 찌르는 해변과 물 위에 떠 있는 집들을 그렸다. 리안의 그림 속 세상은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강렬하고 생생한 색으로 가득했다. 리안은 그림 옆에 빼뿔빼뿔한 글씨로 단어를 적어주기도 했다. ‘Cảm ơn(감언)’은 고맙다는 뜻이고, ‘Xin chào(씬짜오)’는 안녕이라는 뜻이라고.

나는 리안의 세계에 조금씩 발을 들였다. 리안의 엄마는 한국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사는 것을 꿈꿨다고 했다. 지금의 새아빠는 좋은 사람이지만, 가끔은 아주 먼 나라에 있는 진짜 아빠가 보고 싶어 밤에 몰래 운다고 했다. 리안의 이야기는 내가 교과서에서 밀줄 그으며 외웠던 ‘다문화 가정의 어려움’ 같은 딱딱한 문장이 아니었다. 그저 친구가 그리웠고, 아빠가 보고 싶은, 나와 똑같은 열네 살 소녀의 마음이었다.

사건은 한여름의 소나기처럼 예고 없이 찾아왔다. 이장님 댁의 새하얀 페르시안 고양이 ‘나비’가 사라진 것이다. 온 동네가 발칵 뒤집혔다. 그때 누군가 독초처럼 퍼지는 한마디를 던졌다.

“혹시 새댁네가... 그쪽 사람들은 짐승을 막 잡아먹는다던데...”

그 말은 끈적한 거미줄처럼 순식간에 동네 전체로 퍼져나갔다. 할머니는 내게 최후통첩을 하듯 말했다. “거 봐라. 그러니까 내가 뭐랬어. 당분간 저 집 근처엔 얼씬도 하지 말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리안이 얼마나 동물을 사랑하는지, 스케치북을 온통 고양이 그림으로 채워놓았다는 것을, 이 동네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다. 리안의 가족은 하룻밤 사이에 낯선 이방인에서 파렴치한 범죄자가 되어 있었다. 이것이 바로 국어 시간에 배웠던 ‘편견’이고, ‘차별’이었다. 내 친구의 이야기가, 바로 내 눈앞에서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번뜩이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방관자로 남을 수 없었다. 나는 할머니의 눈을 피해 리안에게 달려갔다. 리안은 파란 대문 앞에 웅크리고 앉아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어른들의 잔인한 말들을 모두 알아들은 것이다.

“리안, 울지 마. 우리가 나비를 찾으면 되잖아. 네가 그런 애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보여주면 되잖아.”

리안은 통통 부은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나는 리안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는 함께 나비를 찾아 나섰다. 나비가 낮잠 자기를 좋아하던 뒷산 정자와, 길고양이들이 자주 모이는 낡은 빈 창고를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마침내, 해가 붉게 타오르며 산 너머로 넘어가려 할 때, 우리는 이장님 댁 평상 밑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는 나비를 발견했다. 나비는 갓 태어난 듯한 작은 생명체들에게 젖을 물리며, 잔뜩 경계하며 우리를 향해 으르렁거렸다.

우리가 나비와 새끼 고양이들을 데리고 나타나자, 어른들은 모두 입을 다물었다. 이장님은 별게진 얼굴로 우리에게 연신 고맙다고 했고, 리안을 의심했던 어른들은 약속이나 한 듯 슬그머니 흩어졌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텃밭에서 갓 딴 오이와 토마토를 바구니 가득 담아 리안네 집에 가져다주셨다. 그것은 할머니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과이자, 서투른 화해의 손길이었다.

여름의 끝, 서울로 돌아가야 하는 날이 왔다. 버스 정류장에서 리안은 내 손에 작은 쪽지 하나를 쥐어주었다. 서툴지만 온 마음을 눌러 담은 글씨였다.

「나의 첫 번째 친구에게. 너 나의 어색한 세상에 처음으로 찾아온 ‘씬짜오(안녕)’였고, 내 모든 마음에 대한 대답인 ‘감언(고마워)’이었어. 너 덕분에 나의 여름은 외롭지 않았어. 정말 고마워.»

나는 차창에 이마를 기댄 채, 점이 되어 사라지는 리안의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세 번째 여름은 그렇게 끝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것이 분명히 달라져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세상의 주변을 맴도는 관찰자가 아니었다. 나는 내 첫 번째 친구의 손을 잡았고, 부당함에 맞서 아주 작은 목소리라도 낼 수 있게 되었다.

서울로 돌아온 나는 책상 앞에 앉아 하얀 원고지를 꺼냈다. 더 이상 무엇을 써야 할지 망설이지 않았다. 나는 나의 세 번째 여름과, 나의 첫 번째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 이것은 시도, 소설도, 수필도 아니었다. 그 모든 것을 담아낸, 오직 나만이 쓸 수 있는 나의 이야기였다. 낯설고 이국적인 향신료 같았던 한 아이가 내 세상에 스며들어, 얼마나 깊고 풍요로운 맛과 향기를 남기고 갔는지에 대하여. 그리고 그 아이를 통해 나 역시 세상에 없던 새로운 색을 가진, 단 한 사람의 ‘나’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에 대하여. 나의 연필은 막힘없이 움직였다. 그것이 바로, 문학이, 그리고 나의 첫 번째 친구가 내게 가르쳐준 가장 눈부신 용기였다.

## 펼방익수

중등부 우수상, 정초요, 반곡중학교

뜨거운 태양 아래  
호로록 녹는 얼음

미숫가루 이불 덮고  
모래사장처럼 반짝

수영복 입은 젤리들  
뛰놀다 풍덩

아이스풀 속 무지개  
반짝 눈 웃음

말랑말랑 떡 언니  
새하얀 볼 발그레

부끄러워 숨었지만  
풍덩! 하고 입수 완료

까만 팔동생  
슬쩍 고개 내밀다

“나도 꺼줘.”  
“좋아, 다 같이 놀자.”

달콤하고 시원한  
여름 최고의 수영장

# 이태원 버스킹!

## 중등부 장려상, 김도혜, 도담중학교

늦가을의 바람이 코끝을 스치는 유흥의 밤. 사람들의 웃음과 음악 소리, 각국의 언어가 한데 뒤섞여 거리를 채웠다. 눈부신 네온사인과 진한 향신료의 음식들, 어디선가 들려오는 흥겨운 소리까지. 이곳은 단순한 거리 이상의 단꿈같은 곳이었다. 이태원은 마치 세계의 축소판 같았다.

헬러원 축제가 한창이던 그날 밤, 나는 이태원에서 그를 처음 만났다.

친구를 기다리던 중, 낯가름을 매우는 음악 소리가 나를 이끌었다. 발걸음이 도착한 곳에선 버스킹이 한창이었다. 작게 조성된 무대엔 외국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감미롭게 노래를 부르며 기타를 치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가 나를 한참 동안 붙잡아 두었다. 아쉽게도 금방 도착한 친구에, 나는 기억에 박힌 그를 그리며 그 자리를 떠났다. 운명같이 스쳐 간 첫 만남이었다.

친구와 새벽까지 놀다 헤어지던 길, 골목 어귀가 소란스러웠다. 시선이 자연스레 그쪽으로 돌아갔다. 아까 무대 중앙에서 빛나던 그가 보였다. 그와 한국인들 사이에 시비가 붙은 것이었다. 들어보니 말이 안 통해서인 듯했다. 한국인들은 너 방금 욕한 거지, 한국에 오면 한국말을 배워라, 네가 아까 내 여친 꼬셨잖나, 라며 비꼬는 말투를 썼고, 그는 부정하는 영단어들을 허겁지겁 뱉으며 당황해했다. 금방이라도 그가 맞을 위기에 처하자 나는 급하게 그의 앞을 막아섰다.

“왜, 왜 때리려 그래요, 사람들!”

도대체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냥 멋대로 내가 튀어 나갔다. 한국 남자들이 코웃음을 치며 비아냥댔다.

“너 애 여친이라도 되냐?”

“그건 아닌데.. 이 사람이 뭘 잘못했는데요..!”

그랑 말도 일체 섞어본 적 없는데, 그가 결백하다는 걸 내가 알 길은 없었다. 그럼에도 왜인지 그가 잘못하진 않았을 것 같았다. 그런 막무가내 같은 확신이 들었다. 뭘 증거도, 근거도 없이 그는 그럴 리가 없다고 대변했다. 그도 나를 조금은 당황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럴만했다. 적어도 나는 그의 무대를 봤지만, 그는 그 많은 인파 속 나를 발견했을 리가 없었을 테니까. 초면인 어떤 여자가 저를 위해 떨면서도 막아서는 것을 꿈결 같은 눈동자를 하곤 바라봤다. 남자들은 저들끼리 쑥덕댔다. 이내 우리에게 한숨과 함께 저리 가라는 손짓을 했다.

“에휴 됐다, 봐준다.”

굳이 여자랑은 휘말리기 귀찮다는 듯이 남자들은 투덜대며 자리를 떴다. 누구 하나 맞지 않고 넘어간 것에 다행이라 여기며 나는 그를 살폈다. 괜히 오지랖을 부렸나, 민망한 마음에 어설픈 영어를 뱉었다.

“유, 유얼 오케이? 파인?”

어릴 적에 회화 좀 제대로 배워 놓을걸. 어디 내놓기도 부끄러운 내 영어 실력에 헛웃음이 저절로 나왔다. 그런 나를 보며 그는 말갈게 웃었다. 다행히 오지랖이라고 느끼진 않는 모양이었다. 그는 제법 유창한 영어 발음을 뽐내며 답했다.

“I'm fine, thank you.”

이국적인 그의 눈웃음이 아직도 섰다.

그를 이대로 보내기엔 어딘가 아쉬웠다. 어쩌다 인연이 맺어졌으니까 조금 더 오지랖을 부려도 되지 않을까. 기타를 치며 찬란히 빛나던 그가 생각났다. 또다시 출처를 모르는 용기로 그를 붙잡고는 냅다 질러버렸다. 그는 내가 초면일 텐데, 참 기개도 대단했다.

“저랑 잠깐 얘기할래요?”

황당함만 가득한 나의 물음에도 그는 잠시 의아해하다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걷는 걸음 뒤로 순순히 나를 따라왔다. 무슨 말인지도 모를 텐데, 왜 순응하는지 의문이 들었다. 초면에 의심도 안 하나, 어디 가서 간이라도 떼이고 온 건 아닐까 하는 오지랖 가득한 걱정이 들었다. 그렇지만 기분은 꿈만 같았다. 무언가 나의 꿈이 이뤄지기 직전의 폭풍전야 같았다. 꿈을 이룰 수 있을까, 기대가 들었다. 평소라면 헛된 기대라 치부했을 텐데, 이번엔 달랐다. 두근거리는 가슴을 품에 안고 그를 근처에 있는 내 작업실로 데려갔다.

작업실은 그를 들이기엔 허름하고 초라했다. 적금을 깨서 간신히 마련한 단칸방이었다. 좁은 벽에 온갖 중고 악기들이 즐비했다. 그의 안광에 흥미가 차올랐다. 서툰 영어로 나의 저의를 설명했다.

“음.. 그러니까, 리센틀리, 아이 룩엿유. 유 플레잉 기타 앤 싱잉.”

일적으로 마음에 든다는 걸 영어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망설여졌다. 라이크는 오해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러다간 일면식도 없던 사람에게 냅다 고백해 버리는 미친 사람으로 낙인찍힐까 봐 서슴됐다. 결국 고뇌해서 말을 꺼냈다.

“아이 윈트 투 토크 유, ...어바웃 뮤직.”

나의 말을 잠자코 듣던 그가 한바탕 웃었다. 좁은 방을 그의 폭소로 채웠다. 그리곤 대답했다.

“Me too.”

나는 밝게 웃으며 기타를 갖고 왔다. 언어는 달라도 공통된 음악이란 관심사가 국경을 허물었다.

밤새 번역기를 통해 이야기를 나눴다. 알고 보니 그는 스페인 사람이었다. 스페인 사람들은

영어를 그닥 잘하지 못한다는데, 그는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느라 영어를 익혔다고 했다. Pablo. 그의 스페인 이름이었다. 한국어 이름도 짓고 싶어서 알아보는 중이라고도 덧붙였다. 나도 또박또박 이름 석 자를 천천히 알려줬다.

“마이 네임 이즈 김 이 화.”

파블로는 나의 입 모양을 유심히 살피더니 최대한 비슷한 소리를 내려 노력했다.

“김이..하”

맞는 발음은 거의 없었지만, 나라고 다르지도 않았기에 맞다고 고개를 주억거렸다. 동이 틀 때까지 함박웃음을 지었다.

내가 파블로를 데려온 가장 주된 목적을 조심스레 꺼냈다. 아까 보니까 버스킹 공연을 자주 다니는 듯한데, 나도 끼워줄 순 없겠냐는 식의 부탁을 번역기에 적었다. 번역기의 기계적인 음성이 그에게 전달되었다. 곧 파블로도 모호한 얼굴로 타자를 쳤다. 기계적인 음성이 다시 한번 한국어로 들려왔다.

“좋은 제안입니다. 다음 주에 공연이 이태원에서 있는데, 가능한가요?”

파블로가 나와 눈을 맞추며 눈꼬리를 접었다. 심장이 금방이라도 튀어 나갈 것처럼 두근댔다.

그날부터 나는 파블로와 하루도 빠짐없이 연습했다. 파블로는 항상 스페인 음악이나 기타 연주를 주로 무대를 구성했는데, 이번에는 내가 있으니 한국 음악을 도전해 보기로 했다. 나는 발라드 하나와 유명한 밴드의 곡을 하나씩 골랐다. 파블로가 잠시 듣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엄지를 치켜세웠다. 파블로는 기타를 연습했고, 나는 노래를 수도 없이 연습했다.

함께 버스킹을 하기로 한 날이었다. 나는 가슴이 미치도록 두근거렸고 미치도록 긴장됐다. 내가 꿈꾸던 공연이란 걸 비로소 하게 되었다. 조금 작을 지라도, 혹여나 관객이 한두 명이라 할지라도 좋았다. 나 홀로는 해낼 수 없던 일은 해낼 수 있었으니까. 모든 게 파블로 덕이었다. 심호흡하는 나에게 파블로가 다가와 어깨를 토닥여 주었다.

“Come on, you can do it!”

유투. 나도 그에게 대답했다.

곧 흥겨운 축제 속에서 공연이 시작되었다. 내 예상보다 열기는 뜨거웠고, 나의 첫 무대는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우리의 화음 속에서 박수갈채가 섞여 들려왔다. 꿈보다도 더 꿈만 같은 순간이었다.

버스킹이 끝난 후, 나는 파블로의 밴드와 함께 뒷풀이를 즐겼다. 언어도 다르고, 먹는 안주도 달랐지만, 그저 행복했다. 음악이라는 관심사 속에서 하나가 된 기분이었다.

파블로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자 따로 술을 사주겠다고 했다. 우리는 작업실에서 술을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다.

술기운에 이끌려 파블로를 똑바로 보고 한국어를 가르쳐주었다.

“세잉, 감사합니다.”

그가 내가 영어를 하던 것처럼 어설피게 따라 했다.

“감사합니다.”

그가 나를 보며 왜 그리 웃어댔는지 단박에 알 것 같았다. 서투른 그의 입 모양이 참 웃겼다. 그에게 뜻을 가르쳐줬다.

“잇 이즈 땡큐. 오케이?”

파블로도 한국어가 재밌는지 더 많은 걸 원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실례합니다. 나는 파블로에게 많은 표현을 가르쳐줬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뜻까지도.

“사랑해.”

“사랑해? what means?”

“민스 아이 러브 유.”

“oh..”

그는 이유 모를 미소를 입가에 띄웠다. 그리고 그도 불어를 가르쳐줬다.

“Te quiero. It's like... 사랑해”

순간, 말이 오갈 때마다 마음이 가까워졌다.

언어, 피부색, 문화, 생활방식. 우리는 그 모든 게 달랐다.

그럼에도 이해하려는 마음만 있다면 그런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저 우린 우리대로 가까워지기에 충분했다.

작은 관심이 세상을 저 친밀하고 따듯하게 가꾸었다.

# 모두 다른, 모두 친구

중등부 장려상, **오은기**, 원주여자중학교

푸푸는  
초콜릿 같은 피부에  
아빠는 아프리카 사람이예요

하링은  
호수같은 파란 눈에  
엄마는 네덜란드 사람이예요

대한이는  
고양이 같은 눈매에  
엄마도 아빠도 한국 사람이예요

다르게 생겨도  
다른 곳에서 와도

우리는  
마음을 나누고  
웃음을 나누는 친구예요

# 스콜

중등부 장려상, **이소원**, 천안월봉중학교

“노만, 아침 밥 먹고 가.”

고소한 빵 냄새와 함께 엄마의 목소리가 방문을 두드렸다. 노만은 한숨을 작게 내쉬며 방에서 나와 강제로 식탁에 앉혀졌다. 토마토와 감자가 든 카레를 휘젓고 있으니 배에서 꼬르륵, 눈치 없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무언의 압박이 든 엄마의 시선을 피하며 몇 손가락을 입에 넣은 노만은 손에 옥수수 빵 몇 개를 집어 들고 현관문을 나섰다. 문을 열자마자 찌는 듯한 바람이 훑 끼쳤다.

바퀴 바람이 새는 자전거를 끌고 가던 노만은 멀리서 손을 흔드는 무리를 발견하고 열심히 페달을 굴렸다. 피부색도 키도 저마다 다른 오합지졸 아이들은 모두 같은 학교로 등교하는 길이었다. 호젓한 골목길로 들어서니 작은 비석이 세워진 건물 한 채가 드러났다. ‘국립 다문화 대안학교’ 라는 정식 명칭이 붙은 이 자그마한 학교는 개교한지 삼 년도 채 안 되었지만 벌써 근방 동네 맘 카페들의 큰 화제로 떠오르며 입방아에 올라있었다.

“오, 노만. 좋은 아침이구나.”

교문 앞에서 등교하는 아이들에게 하이파이브를 쳐 주던 교감선생님이 노만을 알아보고는 너털웃음을 지어 보이셨다. 노만과 친구들도 고개를 꾸벅 숙이며 교문을 통과했다. 한 교실에 학생 대여섯 명이 전부인 작은 학교에서는 학년 구분 없이 모두가 친구였다. 그 중에서도 일학년 노만과 유이, 성준이와 이학년 한진이는 매일 등교를 같이 하는 가장 친한 친구들이었다.

“너희들은 기후, 날씨 이런 거 안 배우지? 이학년 되어봐라, 겁나게 어렵다.”

유일한 이학년 한진이가 종례 전, 마지막 시간 일학년 교실에 찾아와 푸념을 늘어놓았다. 조선족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한진이는 중국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어를 더 유창하게 했다. 이에 질세라 가담한 유이가 일학년 교과서를 펼쳐들었다.

“올 해는 제2외국어 과목도 새로 생겨서 만만치 않아. 각자 부모님 모국어를 배우면 좋다는데, 난 필리핀어 하나도 모른단 말이야.”

그건 성준이와 노만도 마찬가지였다. 각각 베네수엘라, 네팔에서 온 부모님을 둔 두 아이도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간단한 인사말 정도가 다였다. 가끔가다 이국적인 외모에 외국인 여행객들이 말을 걸어 올 때면, 본인이 한국인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데에만 한참이 걸렸다. 그럴 때마다 노만은 차라리 외국인이라도 되어 명쾌하게 설명해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 맞다, 너희 그거 알아? 옆 학교 애한테 들은 말인데, 이 근방에서 우리학교 이미지가 엄청

안 좋구나 봐. 막 위험한 애들이라는 말까지 있었다.”

유이의 말에 아이들의 낯빛이 절로 어두워졌다. 사실 요 근래 모두가 체감하고 있던 바였다. 학교 앞 골목에 인적이 드물어졌고 자주 보이던 아이들도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정말 그런 소문이 돌았을 줄이야. 노만은 며칠 전 마주쳤던 여자가 떠올라 저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렸다. 사람을 앞에 두고 숙덕거리던 그 눈에는 분명 무시와 괘시가 담겨있었다. “우리가 금발에 푸른 눈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그런 소문이 돌았을까?” 노만이 중얼거린 말을 아무도 듣지 못하고 종이 울렸다. 선생님의 종례와 함께 아이들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학교를 나섰고, 노만과 아이들도 교문 밖으로 향했다. 머리 위에서 목직한 물방울이 투둑,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곧 이어 바닥에 수많은 점무늬가 생겼고, 아이들이 급히 상가 밑으로 피했을 때에는 이미 하늘을 빠르게 가르는 먹구름에서 시원한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었다.

“우산도 없는데 어떡하지?”

당황한 친구들을 두고서 한진이가 먼저 빗속으로 뛰어들었다. 더운 열기가 식어 바닥에서 수증기가 피어올랐다. 뒤이어 성준이도, 유이도 눈을 질끈 감고서 상가를 벗어났다. 남은 것은 노만 하나뿐인 상황에 한진이 온통 젖은 얼굴로 웃으며 소리쳤다.

“와아- 스쿨 내린다! 엄청 시원해. 그냥 가자, 노만!”

결국 친구들의 손에 이끌려 노만도 빗속으로 뛰어들었다. 끝없이 쏟아질 것만 같은 빗소리에 답답했던 가슴이 조금이나마 시원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지금 이 순간에는 피부색이 어떤지, 눈이 까만지 아무래도 상관없을 것만 같았다. 해방감 속에서 정신없이 뛰는 친구들을 따라 뛰며 노만이 물었다.

“한진아, 아까 스쿨 이라는 거 무슨 뜻이야?”

“응? 아, 열대지방에서 내리는 비 말하는 거야.”

“한국은 열대지방이 아니지 않아?”

노만의 말에 앞서가던 유이가 팔을 활짝 벌리고서 소리쳤다. 유이가 밝고 선 아스팔트에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스쿨이든 소나기든 다 똑같은 비지 뭐! 이 정도 더위는 열대야로 쳐 줘.”

아이들의 숨찬 웃음이 빗소리에 묻혔다. 더운 날에 열기를 식혀주려고 빠르게 내렸다 사라지는 스쿨. 점점 멀어지는 먹구름을 올려다보며 노만은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었다. 열을 앗아간 비 덕분에 몸이 한결 시원했다. 오히려 포근하게 어루만지는 안정감마저 느껴졌다. 벌써 한참을 멀어진 친구들이 노만에게 소리쳤다. 웃으며 저를 부르는 친구들에게 달려가는 노만의 얼굴에도 작은 미소가 피었다. 짧은 비가 지나간 자리에 다시 하늘이 파랗게 개고 있었다.

# 무지개

초등부 대상, **허예준**, 솔샘초등학교

빨주노초파남보  
무지개는 일곱 빛깔

빨간색이 없으면  
고추장 없는 비빔밥

주황색이 없으면  
당근 없는 김밥

노란색이 없으면  
껍질 없는 바나나

초록색이 없으면  
나뭇잎 없는 나무

파랑색이 없으면  
하늘 없는 태양

남색이 없으면  
어둠없는 달과 별

보라색이 없으면  
익지 않은 포도

무엇하나도 없으면  
무지개가 아니지

# 48색 색연필

초등부 최우수상, **임유림**, 반곡초등학교

내게 흰색 색연필만 있다면  
나는 하얀 새를 그리고

내게 까만 색연필만 있다면  
나는 까만 새만 그릴 텐데.....

하지만 세상에는  
오색빛깔 다양한 새들이 있고

새들은 서로서로  
어울려 살지요

그리고 내게는  
48색 색연필이 있기에

세상에 모든 새를  
그릴 수 있어요

# 다양한 소금 향아리

초등부 우수상, **원현**, 삼육초등학교

우리가 사는 향아리  
우리들은 소금 알갱이

한 알, 한 알 그 중 색이 다른 소금들

색은 다르지만 모두  
똑같은 소금들

색이 다양한 소금  
여러 색의 소금이  
모여 내는 특별한 맛

우리 모두 모이면  
더욱 맛있어질 음식

## 반짝반짝

초등부 우수상, **박은유**, 삼육초등학교

친구는 말이 느리고  
나는 말이 빠르고

친구는 키가 작고  
나는 키가 크고

친구는 피부가 까맣고  
나는 하얗고

우리는 달라도  
친구야.  
다르면 어때?

빛나는 너와 내가 만나  
세상을 밝히잖아.  
반짝반짝 밝히잖아.

## 다름수록 존중하자

- '젓가락 달인'을 읽고

초등부 우수상, **정지유**, 잠현초등학교

'젓가락 달인'을 읽기 전까지 나는 젓가락보다 포크를 자주 사용했기 때문에 젓가락에 자신이 없었다. 예전에 수업 시작 전, 재미로 했던 젓가락 대회에서 너무 떨렸던 기억도 있다. 그때 젓가락을 잘 썼다면 더 자신 있게 했을 텐데, 평소 젓가락을 잘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 조금 부끄럽게 느껴졌다.

이 책은 우봉이네 반 선생님이 젓가락 대회를 열겠다고 하시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처음에 우봉이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고 귀찮게 여겼지만, 할아버지가 도토리묵을 능숙하게 집을 모습을 보고 마음이 바뀐다. 우봉이는 할아버지에게 젓가락질을 배우며 콩을 옮기며 연습하기 시작하고, 할아버지는 형겅에 싸인 은젓가락을 건네며 응원해 주신다.

어느 날 시장에서 우봉이는 친구 주은이와 주은이의 엄마를 보게 된다. 주은이 엄마는 손으로 음식을 먹고, 말투도 다르다. 그 모습을 본 우봉이는 놀라 뒷걸음질치며 도망친다. 우봉이는 속으로 '야만인 같다'고 생각하지만, 할아버지는 "그건 그 나라의 문화야"라고 말해주신다. 그 말을 들은 나는 우봉이의 마음이 이해되면서도, 나 역시 우리와 다른 문화를 쉽게 이상하게 여기고 있던 않았을까 반성하게 되었다.

젓가락 대회 날, 할아버지는 우봉이에게 "동무를 이기려고 하지 말고, 그냥 달인이 되거라"라고 말씀하신다. 처음엔 이기기 위해 나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우봉이는 그 말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결승에 오른다. 결승 상대는 다름 아닌 주은이. 그 순간, 우봉이는 단지 이기기 위한 대회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기회라는 걸 깨닫게 된다.

우봉이는 주은이가 다르다고 멀리하지 않고, 주은이의 엄마가 손으로 밥을 먹는 것도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전통이라는 걸 받아들이게 된다. 다문화 가정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는 사실을 배우며,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키워나간다. 나는 마치 여러 색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그림을 만드는 것처럼, 다양한 문화를 가진 친구들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더 멋지다고 느꼈다.

'젓가락 달인'을 읽고 나는 깨달았다. 누군가 나와 다르다고 해서 이상하게 여기기보다는, 그 다름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봉이처럼 나도 앞으로는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과정'과 '존중'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싶다. 이 책의 제목은 '젓가락 달인'이지만, 나는 진짜 달인이란 마음을 쓰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다.

# 물감

초등부 우수상, 정원희, 장동초등학교

하얀 캔버스 위에 붓끝을 타고  
이름도 빛깔도 다른 빛들이 걸어온다

붉은 빛은 사막의 해를 품고  
푸른 물결은 섬나라의 숨결을 실으며  
노란 햇살은 쌀밭의 기도를 안고  
검은 먹빛은 깊은 강처럼 흐른다

그들은 스스로를 지우지 않는다  
섞이되 사라지지 않고  
어우러지되 흐려지지 않으며  
저마다의 걸을 살려 조화를 이룬다

스스로의 색을 잃지 않되  
더 넓은 빛으로 나아가며  
마침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  
우리라는 이름으로 캔버스 위에서 빛난다

# 지구는 왜 둥글까?

초등부 우수상, 정원희, 장동초등학교

지구는 왜  
네모나지 않고 둥글까?

모서리마다 싸우지 말라고  
누구 하나 귀퉁이에 밀리지 말라고  
사각지대에서 소외되지 말라고  
둥글게, 둥글게 만든 거래

북쪽 끝 추운 이도  
남쪽 끝 더운 이도  
돌고 돌아 만나게 하려고  
지구는 한 바퀴 인연을 굴러

모두가 가장자리지만  
동시에 모두가 중심인 세상  
누구도 꼭짓점이 아니기에  
우린 원 안에서 춤을 춰

그러니까 지구가 둥근 건  
서로 다른 우리가  
함께 굴러가기 위해서야

# 아시아에서 하나 된 세상

초등부 우수상, 정원희, 장동초등학교

달이 뜨면 다양한 문화가 깨어난다  
소박한 불빛들 아래  
지구촌이 지글지글 익는다

한쪽에선 고수 향 찌는 쌀국수가  
건너편엔 시원한 타코가 접히고  
닭꼬치엔 간장보다 커민이 묻어 있다

김치만두 옆엔 케밥이 높고  
손바닥만 한 나폴리 피자  
떡볶이 옆에서 살짝 미소 짓는다

국경 대신 맛으로 통하는 세계  
비자도 필요 없다  
배만 고프면 시민 자격 충분하다

혀는 바쁘고 코는 여행 중  
매콤, 짭조름, 달달, 새콤  
말은 통하지 않아도  
양념은 대화가 된다

서로 다른 맛이 어우러지는 밤  
이곳은 맛있는 세계지도  
솔뚜껍이 펼친 외교  
소스가 맺은 평화 조약

젓가락을 들어라  
입 안에서 지구가 춤춘다

# 서로 달라도 존중하는 마음

초등부 장려상, 류승현, 서울용산국제학교

나는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온 다양한 외국인들과 매일 만난다. 피부가 하얀 친구도 있고, 피부가 검은 친구도 있고, 피부가 나와 같거나 더 진한 친구도 있다. 그들은 피부색만 다른 게 아니라 생각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다. 하지만 생각이나 언어가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 종교가 다른 것 때문에 자주 말다툼이 생기기 때문이다. 나는 종교가 없기 때문에 종교와 문화가 그리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국제학교에서는 종교와 문화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문제가 되기도 한다.

어떤 친구는 이슬람교 신자이고, 어떤 친구는 기독교 신자이며, 또 다른 친구는 힌두교 신자이다. 이런 다양한 아이들이 모여서 급식을 먹는 점심시간이 되면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 어떤 종교에는 허락된 고기가 어떤 종교에는 피해야 하는 음식이기 때문이다. 급식으로 나온 음식이 고기일 때면 친구들은 어떤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하는지를 두고 말다툼을 하곤 했다. 각자의 믿음 안에서 지켜야 하는 규칙을 내세우며 싸웠다. 급식을 먹던 아이들은 이 싸움에 관심이 많았지만 나는 고기의 종류가 왜 중요한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런데 어느 점심시간이었다. 소고기와 돼지고기 때문에 친구들이 다투기 시작했고, 결국 주먹까지 휘두르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싸움이 커지자 친구들은 선생님을 급식실로 모셔왔다.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싸운 이유를 물으셨고, 아이들은 각자의 입장을 말했다. 나와 친구들은 싸웠던 친구와 선생님을 둘러싸고 누가 이 싸움에서 이길지 선생님의 판결을 기다렸다.

그러나 선생님은 그 누구의 편도 들지 않으셨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없다고 하셨다. 국제학교에 있는 모든 학생들은 각자의 문화 안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잘못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상대방의 문화를 잘못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알려주셨다. 서로를 때리며 싸웠던 친구들은 악수를 하며 화해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의 문화는 무엇일가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나는 종교가 없다. 그래서 종교가 있는 아이들과 다른 점을 가졌다. 나는 종교가 있는 아이들이 규칙 때문에 힘들게 사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아마 다른 친구들도 내가 규칙 없이 사는 것 같아서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나는 종교가 없거나 있는 것은 서로의 다른 점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면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얼굴이 서로 다르게 생긴 것과 같다.

우리가 서로에 대해 “왜?”라고 자꾸 묻는다면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없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구나.”라고 이해해주면 우리는 서로에 대해 잘 알 수 있게 된다. “왜”라는 질문은 상대방을 신기하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말이다. 우리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친구가 될 수 있고 똑같지 않기 때문에 서로를 발전시킬 수 있다. 우리 학교는 서로 다른 문화가 함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서로 다르다고 싸우지 말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배우려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발전할 것이다.

## 과자 파티

초등부 장려상, **최준희**, 명륜초등학교

홀로 있는  
하얀 생크림이 외로울까  
쌍둥이 오레오는  
생크림을 꼭 안아주네

홀딱 벗은  
뽀얀 몸이 부끄러울까  
콘초코는  
달달한 옷 입혀주네

꼬옥 감싼  
오레오 품속에서  
생크림은 살짝 웃고

달콤한  
옷 입은 몸 위로  
초콜릿 냄새가 퍼져가네

모두 함께  
달콤한 파티를 준비하네

## 다문화가족의 장점을 알려드립니다.

초등부 장려상, **임주이**, 서울가재울초등학교

흘나는 햇살 초등학교 4학년 김리아. 요즘들어 학교가는 것이 두렵다. 아빠는 나와 같은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우리 엄마는 원래 네팔 사람이다. 친구들은 나를 “팔이 네 개 달린 아이”라고 놀려댄다. 우리 엄마는 얼마 전, 정식으로 대한민국 사람이 되었는데 아직 우리말을 사용하는 것이 어색하다. 10년이나 지냈지만 말이다.

며칠 전, 학부모 공개 수업 날. 학교에 오신 엄마를 보고 친구들은 수군거렸다. “어머! 저 사람은 누구야? 피부색이 엄청 검네. 우리 말은 할 줄 알까? 김리아 엄마라는데, 재네 다문화가족이래 ㅋㅋ!” 그 말에 우리반 친구들이 웃어댔다. “김리아 재는 정말 힘들겠네. 엄마랑 말도 안 통하니까. 아마 매일 자기 집에서 번역기로 대화할 걸?” 저 멀리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였지만 나와 엄마의 얼굴은 빨개지고 말았다. 특히 나는 엄마 옆에 있는 다른 엄마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이 제일 싫었다. 울음이 터질 것 같았지만 정말 죽을힘을 다해 참았다.

그 날 이후, 나는 학교가 더 싫어졌다. “다문화가족이 뭐 어때서 그래! 걸모습만 다를 뿐 다른건 다 똑같은데 말이야. 나는 친구들이 잘 들어보지 못한 네팔어도 배우고 있다고!” 잘 생각해 보면 좋은 점도 많다. 하지만 친구들은 무조건 단점만 있는 줄 안다. 나는 매일 학교가기 싫다고 엄마한테 졸라대지만 오늘도 힘겹게 등교할 수밖에 없다.

오늘 교실에 들어서니, 교탁 앞에 담임 선생님과 함께 나와 비슷한 피부색이 검고 귀여운 아이가 서있었다.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여러분, 우리 반에 새 전학생이 왔어요. 자기기소개 해볼까?” “안녕. 내 이름은 김조이야. 앞으로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잘 부탁해.” “그럼 조이는 어디 앉으면 좋을까. 아! 오늘 하루만 저기 김리아 옆에 앉으렴. 어차피 내일은 자리를 바꾸는 날이니깐 말이야. 리아가 조이 좀 잘 도와주렴.” 선생님 말씀이 끝나자마자 작지만 수군대는 소리가 내 귀에 박혔다. “재도 김리아랑 똑같네. 분명히 엄마가 외국인일 거야. 아마 집에서 번역기 사용할 걸!” 나만 들었으면 좋았을 걸 그 말을 들어버린 조이는 얼굴이 빨개졌다. 그리고는 입술을 꼭

깨문채 내 옆자리에 앉았다.

나는 쉬는시간에 조이에게 말을 걸었다. “안녕? 나는 김리아야. 우리 잘 지내보자. 그리고 다문화 어찌구저찌구 놀리는건 상관하지 마. 나는 친구들이 아마 우리를 부러워해서 놀린다고 생각해. 다문화가족이 얼마나 장점이 많은데.”

그러자 조이가 예쁜 미소를 지어보이며 얼굴이 밝아졌다.

“아, 그리고 나도 엄마가 네팔사람인 다문화 가족이야. 친구들과 겉모습이 달라 놀림을 받곤 하지만 친구들이 모르는 장점도 많아.”

그러자 조이는 엄청 놀란 듯 말했다. “저, 정말? 나도 사실 엄마가 네팔사람이야. 이전 학교에서도 애들이 다문화라고 놀려대서 여기로 전학왔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같아 속상해. 하지만 이렇게 너처럼 좋은 친구도 생겼으니까 우리 친하게 지내 보자.” 조이가 나를 친구로 생각하다니 나는 놀라우면서도 기뻐했다.

리아는 조이와 한 발짝 더 가까워진 기분이 들었다.

쉬는시간에 매일같이 나를 놀리던 친구들이 다가와 말했다.

“야야야, 김리아. 너 짝궁 사실 쌍둥이 아니야? ㅋㅋ. 집에는 번역기 몇 개나 있어? 정말정말 힘들겠다! ㅋㅋ.”

나는 너무 분하고 속상했다. 옆에서는 조이가 울먹었다.

우리는 계속 친구들의 놀림감이었다. 그렇지만 나는 전혀 부끄럽지도 내 스스로 위축되지도 않았다. 친구들과 다른 나만의 장점이 있으니까 말이다.

다음 날 많은 친구들이 학교 게시판에 붙어있는 포스터 앞에 몰려 있었다. 나는 궁금해서 가까이 가 보았다.

[안녕하세요? 햇살초 학생 여러분. 학생들이 스스로 공연을 만들고 참여하는 축제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팀을 짜고 상상력을 발휘해 대본도 쓰고 안무도 만들어서 공연하는 뮤지컬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관객이 되어 직접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을 뽑아 직접 상장과 상품도 줍니다. 신청은 햇살 초등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QR코드에 이름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나는 이 포스터를 보고 곧장 조이에게로 뛰어갔다. 그리고는 포스터에 대해 말했고 함께 공연에 참여하자고 제안했다. 조이는 시큰둥한 반응이었지만 나의 계속된 재촉에 무엇을 주제로 할 것인지 물었다.

“우리는 다문화가족이니까 우리가 살아온 경험들을 내용으로 하는거야. 피부색이 다르다고,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다고 친구들이 무시하고 괴롭히는 것을 보여줘서 친구들의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알려주면서 또, 친구들이 다문화가족이 좋지 않은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을 바꿔주고 싶어. 우리 다문화가족의 장점도 많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지!”

조이는 잠깐 고민했지만 자신의 꿈이 뮤지컬 배우이기도 했고, 친구들의 잘못된 생각도 바꿔줄 수 있겠다는 생각에 함께 공연하기로 마음먹었다.

공연 D-30일.

우리는 머리를 맞대고 대본을 짜고 안무를 만들기 시작했다.

우선 주제를 정했다. “다문화가족의 장점을 알려드립니다.”

D-20일.

대본의 어색한 부분을 수정하고, 안무도 좀 더 큰 동작으로 바꾸었다.

다문화 가족의 속상한 점을 연습할 때는 내 마음도 무거웠다. 아마 예전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일 것이다.

D-10일.

이제는 다문화가족을 괴롭히고 무시하는 장면을 연습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

아마 연기가 자연스러운 이유는 내가 많이 경험해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오히려 다문화 가족의 장점을 보여주는 장면을 연습하는 것이 어색했다.

D-1일.

마지막 연습 날이다.

무대 위에서 최종연습을 마치고 내려오는데 우리를 놀리던 무리가 지나가며 우리를 힐끗 보고 웃어댔다.

“재네가 공연을 한다고? 번역기 가지고 들어야겠는걸! ㅋㅋ.”

D-day.

“자 마지막 공연의 주제는 바로 [다문화가족의 장점을 알려드립니다.]입니다.”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말과 함께 우리의 공연이 시작되었다.

공연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진행된 뮤지컬이었다.

미국과 영국의 다문화가족에게 다정하고 배려심 넘치는 친절한 친구들.  
 동남아, 아프리카 다문화가족을 무시하고 괴롭히며 놀려대는 친구들.  
 피부색이 다르다고 비웃는 친구들.  
 그로 인해 상처 받은 나와 우리 가족.  
 그렇지만 다문화가족이기에 겪는 장점도 많다!  
 다문화가족이기에  
 두 나라의 문화를 다 배울 수 있다.  
 두 나라의 언어를 다 배울 수 있다.  
 다른 친구들은 해외여행을 가는 거지만 나는 해외에도 든든한 가족이 있다.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기도 하고, 네팔사람이기도 하다.  
 두 개의 나라가 우리나라여서 너무 뿌듯하다.  
 우리는 모두 같은 사람이다. 좋은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우리가 상처 받았을 때의 느낌을 그대로 관객들에게 전했다.  
 우리가 안무와 대사를 할 때마다 우리를 놀리던 그 무리의 아이들 표정이 점점 변해갔다. 사실  
 그 무리만이 우리를 괴롭힌 게 아니라 모두가 우리를 괴롭히고 상처주는 거였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까만 피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상한 듯 쳐다보고 나를 피해가고. 그런 친구들의  
 얼굴이 붉어지고 웃음기가 사라지는 걸 보니 분명 부끄럽다는 표정이 확실했다.

공연이 끝나고 관객들이 직접 가장 인상 깊었던 무대를 뽑았다.  
 상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우리는 상을 받으러 나온 것이 아니라, 친구들에게  
 우리도 같은 사람, 같은 친구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  
 앞으로 친구들이 우리의 공연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었으면 좋겠다.  
 조이와 나의 얼굴에는 미소가 지어졌다.  
 “우리 공연 성공했다. 그치?”

## 모여서 더 맛있는 세상

초등부 장려상, 장언서, 봉대초등학교

우리는 달라요  
 색도 다르고  
 맛도 달라요

다르다고 해도  
 친구들은  
 우리를 좋아해요

우리는 마치  
 다른 색깔이 모인  
 무지개 아이스크림 같거든요

초코 맛, 딸기 맛, 바닐라 맛  
 다 다르지만  
 모두 입안에서 웃어요

서로 달라서  
 더 신나고  
 더 특별해요

우리는 다르지만  
 함께 모이면  
 세상은 더 맛있고 멋져요

# 나는 아직 자라고 있어

초등부 장려상, 김가빈, 토평초등학교

어떤 날은  
내가 너무 작게 느껴져요  
남들보다 느리고  
틀릴까 봐 말도 아껴요

하지만 선생님은 말씀하셨어요  
“다른 속도로 자라는 나무도  
꽃은 결국 피운단다.”

그 말이 마음속에서  
작은 불빛처럼 반짝였어요

나는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은 느려도  
내 마음의 뿌리는 자라고 있다고

언젠가 나도  
내 입을 흔들며  
누군가에게 그늘이 되어 줄 거라고

나는 아직,  
조용히  
성장하고 있어요

# 편견은 모자를 쓰고 온다

초등부 장려상, 김가빈, 토평초등학교

처음 전학 온 친구는  
피부색이 나보다 진했어요  
몇몇 아이들은  
그 친구를 피했어요

“냄새 날 것 같아.”  
“말도 잘 못해.”  
그런 말들이 내 귀에도 들렸어요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어요  
그 친구가 누구보다  
그림을 잘 그리고  
웃을 때 눈이 반짝인다는 걸요

어느 날  
도서관 앞에서 우연히 마주쳤어요  
그 친구가 먼저 말했어요  
“이 책, 너도 좋아해?”

우리는 그날부터 친구가 되었어요  
편견은 모자를 쓰고 와서  
진짜 얼굴을 가리지만  
마음으로 보면  
모자 속 얼굴이 더 잘 보여요

# 작은 손, 큰 용기

초등부 장려상, 김가빈, 토평초등학교

복도 끝에서  
작은 손 하나가 올라갔어요  
“선생님, 애가 괴롭힘 당해요”

모두가 조용했어요  
그 작은 손이  
모두의 시선을 끌었거든요

아무도 말하지 못했던 걸  
용기 내서 말한 아이는  
다문화 가정의 은이였어요

어떤 친구는  
“재는 끼어들지 마” 했지만  
나는 생각했어요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은  
가장 먼저 움직인 사람이라고

작은 손이 들어올려진 그 순간  
교실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그 작은 손이  
누군가의 마음을  
구해냈으니까요

# 다름을 바라보는 눈

초등부 장려상, 김가빈, 토평초등학교

나는 어릴 적부터 ‘다르다’는 말을 조금 무서워했다.  
‘다르다’는 건 어딘가 특별하고 튀는 것 같았고,  
그건 때로는 외롭고 불편한 일이 될 수 있다고 느꼈다.

처음 다문화 가정 친구를 만났을 때도 그랬다.  
피부색도 나보다 진했고, 말투도 어색했다.  
나뿐만 아니라 몇몇 친구들도  
그 친구와 자연스럽게 어울리지 못했다.  
누가 먼저 말을 걸지도 않았고,  
급식시간엔 그 친구가 혼자 있는 날도 많았다.

나도 그 친구가 눈에 보이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슬쩍 피했던 기억이 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반에 발표 시간이 있었다.  
그 친구가 자신의 나라에 대해 발표하게 되었고,  
나는 조용히 기대 없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화면 속에는  
가족이 함께 웃는 사진,  
알록달록한 전통 옷,  
처음 보는 음식들이 가득했다.  
그 친구는 조심스럽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건 우리나라 설날 음식이에요.  
어릴 땐 할머니가 손으로 만들어주셨어요.”

나는 발표를 들으며 마음이 이상해졌다.  
그 친구가 부끄러워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신의 문화를

그날 이후 나는 용기를 내어 그 친구에게 말을 걸었다.  
“그때 발표한 음식, 이름이 뭐였더라?”  
그 친구는 놀란 얼굴로 웃더니  
“반썬오야! 다음에 만들어줄까?”라고 말했다.  
우리는 급식시간에 같이 앉아 밥을 먹었고,  
쉬는 시간엔 공놀이도 함께 했다.

함께 웃고, 뛰고, 이야기하다 보니  
서로의 다름은 조금도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친구를 통해  
새로운 문화를 배울 수 있어서  
나는 그 시간이 점점 더 소중하게 느껴졌다.

사람은 누구나 다르다.  
좋아하는 음식도, 말하는 방식도, 생김새도.  
하지만 그 다름은 틀림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배우게 만드는  
소중한 시작점이라는 걸  
나는 그 친구를 통해 알게 되었다.

이제 나는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  
겉모습이나 말투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먼저 들여다보려고 노력한다.  
마음으로 보면,  
세상은 훨씬 더 따뜻하게 다가오니까.

그래서 나는 지금도  
‘다름’을 두려워하기보다  
궁금해하고 배우려 한다.  
다르다는 것은 틀린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 위한  
또 하나의 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그 길 위에서  
더 많은 친구를 만나고,  
더 넓은 세상을 배워나가고 싶다.

## 우리 반은 달라서 특별해요

초등부 장려상, 최서연, 삼육초등학교

우리 반을 소개할게요

파란 하늘에  
몽글몽글 떠 있는  
흰 구름 같은 친구가 있어요

하얀 생크림 케이크 위에  
초콜릿 이불 덮은  
달콤한 친구도 있고요

반짝이는 여름 바다를  
눈에 담고 있는  
시원한 친구도 있어요

구름친구는  
햇살처럼 따뜻한 팔로  
포근히 안아주고

초콜릿 친구는  
알록달록 토핑처럼  
반짝반짝 웃게 해주고

바다 친구는  
파도처럼 시원하게  
마음을 활짝 열어줘요

서로 달라서  
더 특별한 우리  
함께라서  
더 빛나는 우리

# 우리 가족은 초코우유

초등부 장려상, **박수진**, 만대초등학교

우리 가족은 초코우유

우리 엄마는  
달콤한 초코가루

우리 아빠는  
새하얀 우유

아빠와 엄마가 섞여서  
맛있는 초코우유인 내가 태어났어

흰 우유들이 까맣다고 놀려도  
흰 우유들이 다르다고 놀려도

나는 달콤한 냄새로  
특별한 맛으로  
세상을 빛낼거야

# 이웃집의 낯선 향신료

초등부 장려상, **김울곡**, 서대전초등학교

우리 아파트 복도에는 늘 익숙한 냄새가 났다. 1301호 할머니 덕의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 1304호 아저씨네 집의 칼칼한 김치찌개 냄새.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때마다 나는 냄새만으로도 이웃들의 저녁 메뉴를 맞힐 수 있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복도에는 새로운 냄새가 섞여들기 시작했다.

옆집 1303호에 새로운 이웃이 이사를 온 뒤부터였다. 그 냄새는 설명하기 어려웠다. 맵지도, 짜지도, 달지도 않은데 코끝을 쿡 찌르는 듯한 강렬함이 있었다. 엄마는 “무슨 향신료를 쓰나 봐.” 하며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고, 어른들은 복도에서 마주치면 “냄새가 독특하네.” 하며 던지시 눈짓을 주고받았다. 그 낯선 향신료 냄새는 보이지 않는 벽처럼, 우리 집과 옆집 사이에 단단하게 세워지는 기둥이었다.

나는 옆집 아이를 가끔 놀이터에서 마주쳤다. 나와 비슷한 나이처럼 보였지만, 우리는 한 번도 말을 섞어 본 적이 없었다. 그 아이는 늘 알록달록한 무늬가 그려진 옷을 입고 있었고, 혼자서 시소에 앉아 발을 까딱거리거나 개미들을 쳐다보는 게 노는 것의 전부였다. 아이의 엄마는 머리에 화려한 색의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다. 그 가족이 복도에서 그들만의 언어로 대화를 나눌 때면, 마치 알아들을 수 없는 노래처럼 들렸다. 나는 그 모든 것이 궁금하면서도, 그 강렬한 향신료 냄새처럼 다가가기 어렵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나는 학교에서 돌아와 막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려던 참이었다. 마침 옆집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집에서 나오고 있었다. 그 순간, 내 손에 들려 있던 리코더 가방의 끈이 튕, 하고 끊어졌다.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고, 안에 있던 리코더와 악보들이 복도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다. 창피해서 얼굴이 빨개졌다. 내가 허둥지둥 악보를 주워 담고 있을 때, 옆집 아이가 내 앞에 쭈그리고 앉아 리코더를 조심스럽게 주워 건넸다. 아이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보며 살짝 웃어 보였다. 까만 눈동자가 유난히 반짝였다. 고맙다는 말이 목구멍에 걸려 쉽게 나오지 않았지만, 나도 마주 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그날 이후, 아주 작은 벽돌 하나가 빠져나간 기둥이었다. 며칠 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옆집 문이 뻐끔 열렸다. 아이의 엄마가 나를 발견하고는 활짝 웃으며 손짓했다. 그녀는 따끈한 것이 담긴 접시를 내밀었다.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얇은 빵 같은 것이었다.

“한번, 먹어봐요.”

조금 서툰 한국말이었지만 무척 다정한 목소리였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빵 한 조각을 받아들었다. 따뜻한 온기가 손가락으로 전해졌다.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익숙한 밀가루 맛과 함께 그 낯선 향신료의 맛이 느껴졌다. 그런데 이상했다. 코로 맡을 땐 그렇게 강하고 어색하던 냄새가, 빵과 어우러지니 오히려 고소하고 맛있게 느껴졌다.

그 주 주말, 나는 용기를 내어 옆집의 초인종을 눌렀다. 그날의 보답으로 엄마가 만드신 꿀떡

조각을 받아들였다. 따뜻한 온기가 손가락으로 전해졌다.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익숙한 밀가루 맛과 함께 그 낯선 향신료의 맛이 느껴졌다. 그런데 이상했다. 코로 맡을 땐 그렇게 강하고 어색하던 냄새가, 빵과 어우러지니 오히려 고소하고 맛있게 느껴졌다.

그 주 주말, 나는 용기를 내어 옆집의 초인종을 눌렀다. 그날의 보답으로 엄마가 만드신 꿀떡 한 접시를 들고서였다. 아이는 나를 보고 무척 반가워하며 나를 집 안으로 이끌었다. 집 안은 그 향신료 냄새로 가득했지만, 더 이상 역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집만의 따뜻하고 아늑한 공기처럼 다가왔다. 우리는 말은 잘 통하지 않았지만, 보드게임을 하고 그림을 그리며 한참을 놀았다. 아이는 벽에 걸린 커다란 세계 지도를 가리키며 자신의 나라를 알려주었고, 부엌 선반의 작은 유리병들을 가리키며 웃었다. 그 병들 안에는 빨강고 노란 가루들이 담겨 있었다. 바로 그 낯선 향신료들이었다.

그날 저녁, 우리 집 식탁에는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다. 구수한 된장 냄새가 집 안을 채웠다. 그때, 환기를 시키려고 열어 둔 현관문 틈으로 옆집의 향신료 냄새가 살며시 흘러들어왔다. 우리 집의 구수한 냄새와 옆집의 이국적인 냄새가 복도에서 뒤섞였다. 전에는 결코 어울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두 냄새였다. 하지만 나는 문득, 이 두 냄새가 섞인 우리 아파트 복도의 공기가 전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재미있어졌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이제 낯설고 이상한 냄새가 아니었다. 나의 새로운 친구의 냄새, 우리의 새로운 이웃의 냄새였다.

## 수업의 이유

초등부 장려상, **임소율**, 삼육초등학교

우리는 달라요.  
말투도  
모습도

하지만 피부색이 다르다고  
손가락질 해야 할까요?

누가 나를 외면하면  
가라앉는 내 기분

톡톡 던지는  
의미없는 말들  
왜 일까요?

사람들은 왜 차별할까요?  
얼굴이 다르다고  
말이 다르다고...

그 말들이  
쑥쑥 박혀서  
내 심장에  
유리알로  
박혀있어요.

# 다문화 사회

초등부 장려상, 김윤, 인천신선초등학교

반려동물은

외래종, 토종, 믹스종

가리지 않고 좋아하면서

사람은 왜

혼혈이면 편견을 갖고

외국 사람이면 차별을 하지?

다문화가 늘어나니

편견과 차별 줄여야지

함께 잘 살면 얼마나 보기 좋아!

## 2025 제16회 필벽기념문학상공모전 작품집

### <발행정보>

| 발 행 처 | (재)부천문화재단

| 발 행 인 | 한병환

| 기획·운영 | 박민주

| 진행·홍보 | 신지연

| 발 행 일 | 2025년 9월

본 책자에 실린 글은 부천문화재단의 동의 없이 무단전재하거나 사전 협의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